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016 / October 5, 2006

유니젠 러시아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바라본 9월의 하늘
A sky view from the guest house terrace in Unigen Russia, September



발행인 이병훈 / 발행처 (주)남양 / 편집기획 (주)남양 에코넷기업본부 / 편집 오경아 / 편집·디자인 Intercube Design / 인쇄 정광인쇄(주)
Publisher Bill Lee / Published by Namyang Company / Editing and planning by ECONET Corporate Center, Namyang Company / Editor Kyeongah Oh
Editing & design by Intercube Design / Printed by Jeonggwang Printing Co., Ltd

ECONET Special

- 02 > 특집기사 얼어붙은 겨울 땅에 희망의 봄꽃 피우기
- 06 >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CEO 워크숍
- 10 > 스페셜 이슈 1 커뮤니케이션과 ‘금도끼 은도끼’
- 14 > 스페셜 이슈 2 Host Family (중부팀 최정희 UP자녀 이민희)
- 18 > 테마캠페인 10~11월 서번트 리더십 테마칼럼

ECONE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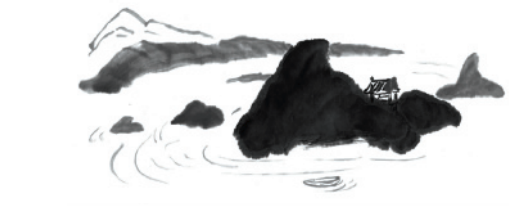
- 22 > 특집기사 황금을 일구는 곳, 유비콤 농장
- 26 > 고고 우리부서 남양 CFT팀
- 28 > 우리집으로의 초대 유니젠 미국의 리건 & 데브라 마일즈 부부
- 32 > 칭찬릴레이 열한번째 주인공 이윤진 대리, 교육팀, 유니베라 한국
- 36 > 칭찬릴레이 열번째 주인공 키타 테렐, 물류관리팀, 유니베라 미국

Culture & Life

- 40 > 신제품 유니베라 화장품의 새 이름, 리니시에
- 44 > 명소소개 여유의 섬, 빅토리아 아일랜드

Info

- 48 > ECONET News Network · 社告 · ECONET 자회사 소식
· ECONETIAN 신입사원 소개 · ECONETIAN 경조사 안내 · ECONETIAN 생일자 소개
- 70 > 사진콘테스트 8월호 사진 당첨자 & 10월호 사진 응모 안내
- 74 > 10월호 퀴즈 & 8월호 퀴즈 당첨자 안내
- 76 > 에코넷웨이에 바란다.



ECONET WAY
Contents



ECONET Special

- 04 > Features Making Flowers of Hopeful Spring Bloom in a Frozen Winter Land
- 08 > Global Business East and West Leadership Retreat
- 12 > Special Issue 1 Communication and the Tale of “Gold Axe, Silver Axe”
- 16 > Special Issue 2 Host Family (Daughter of Univera Planner)
- 20 > Theme Campaign Servant Leadership Theme Column for October & November

ECONETIAN

- 24 > Features The Place Where Gold Is Cultivated
- 27 > Go! Go! Our Division Namyang CFT Team
- 30 > Welcome to My Home Interview with Regan and Debra Miles at Unigen USA
- 34 > A Relay of Praises Yunjin Lee, Education Team, Univera Korea
- 38 > A Relay of Praises Quita Terrell, Warehouse, Univera USA

Culture & Life

- 42 > New Product The New Name for Univera Cosmetics, L’initie
- 46 > Famous Place Haven of Leisure, Vancouver Island

Info

- 48 > ECONET News Network · Company Announcement
· ECONET Subsidiary News · ECONETIAN New Hires
· ECONETIAN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 ECONETIAN Birthdays
- 70 > Photo Contest Winners of the August Contest and the themes for the October Photo Contest
- 74 > October Quiz and Winners of the August Quiz
- 76 > Story Suggestions for ECONET Way



얼어붙은 겨울 땅에 희망의 봄꽃 피우기

구원모 사장의 러시아 개척기

우리가 머물 호텔 '블라디보스톡'에 가자마자 곧바로 욕실로 들어갔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온몸이 동태처럼 푹푹 언 것만 같아 따듯한 물이 그리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 간절한 기대는 이내 무너지고 말았다.
이 호텔에는 더운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글 구원모 사장, 유니젠 러시아

1999년 10월 화창한 가을날, 서울 방이동 '유니베라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 이병훈 사장님께서 찾으셔서 집무실로 들어갔더니 한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다. 건장한 체구에 짧은 머리를 한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매서웠다.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게 그의 시선을 피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사장님께서 웃으시며 그를 소개하셨다.

“국제농업개발원 원장님입니다. 러시아 농지개척에 많은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앞으로 서로 협조하며 진행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원장님과 악수를 나눈 뒤 명함을 교환했다. 사장님께서 말씀 이어 나가셨다.

“선친께서도 생전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장래에 남북관계가 우호적으로 개선된다고 할 때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는 매력적이고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원장님께서 이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침 우리에게 적합한 농업용 토지가 있다고 하시니 신중하게 검토한 뒤 이 농지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주위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측면과 가능성을 고려한 뒤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사장님이셨다. 그래서 더욱 이번 임무가 중요하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순간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의 러시아에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집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책상 위에 세계지도를 펼쳐놓고는 하루 종일 러시아 극동 연해주가 어디에 있고, 주로 무엇을 하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가 살펴봤다.

다음날 국제농업개발원을 찾아갔다. 사무실 입구부터 연해주 전도가 곳곳에 다른 모양으로 붙어있었다. 그리고 온통 러시아어로 된 문서들이 책상 위에 널려있었는데 영어도 능숙하게 구사할 줄 모르는 나에겐 다소 긴장되는 분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개발원 관계자들로부터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벼와 콩을 재배했던 이 지역의 농장들이 러시아 내부 정치적 상황으로 현재는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면 세계 유일의 경제모델을 창출할 수 있으며,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

다. 평소 관심을 두지 못해서 그런지 남북통일이니 식량전쟁이니 하는 용어들이 생소하게만 느껴졌다. 우리가 임대할 농지는 8400ha 두 개 농장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하물군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은 일부 농지에서 벼가 재배되고 있다고 했다.

1999년 10월말, 러시아 비자를 발급받아 블라디보스톡 항공기에 탑승했다. 김포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약 2시간 만에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착륙했는데 기차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빠른 것이니 가깝고도 먼 나라는 일본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검색대를 빠져나오니 길을 안내해 줄 통역사가 우리 일행을 태울 차량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혹한의 매서운 바람에 입이 얼어붙은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임무가 시작됐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우리 일행은 블라디보스톡까지 약 40Km 거리를 침묵 속에서 질주했다. 저녁 무렵에야 블라디보스톡 시내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가 머물 호텔 '블라디보스톡'에 가자마자 곧바로 욕실로 들어갔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온몸이 동태처럼 푹푹 언 것만 같아 따듯한 물이 그리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 간절한 기대는 이내 무너지고 말았다. 이 호텔에는 더운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추위가 몸에 밴 사람들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칭기스칸과 히틀러 모두 러시아의 얼음 장벽에 무너졌지만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 백기를 들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다문 채 미리 챙겨 온 두툼한 옷들을 겹겹이 껴 입고는 잠을 청했다. 고진감래라고 했다.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믿었다.

시간 적응도 있었지만 낯선 잠자리 때문에 밤새 뒤척거렸는지 온몸이 빠근했다. 이제부터 강행군이니 속을 든든하게 채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이내 단념해야 했다. 러시아에서는 하루 일과가 오전 11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꼬르륵거리며 밥 달라는 뱃속의 아우성을 무시한 채 다음 행선지를 향해 차에 몸을 실었다. 쉬지 않고 3시간 여 정도를 달려 하물 군청에 도착했다. 어두침침한 건물 복도를 지나 군수 집무실로 들어갔다. 환갑쯤 돼 보이는 군수는 환한 얼굴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군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농지 지도를 펼쳐놓고는 하물군의 농업현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군수의 말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순 없었지만 격양된 그의 말투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강한 의욕을 엿볼 수 있었다. 통역사를 통해 많은 질문을 건넸는데 간혹 길게 대답한 군수의 말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돌아와서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의아스러웠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으며 우리가 관심을 보인 농지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 했으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일이었다. 우리 일행은 군청에서 나와 농지를 답사했다.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드넓게 펼쳐진 농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드문드문 벼가 보였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자란 야생벼였다. 겨울잠 자는 이 땅에 희망이라는 봄꽃을 피워야 한다. 아직 길길이 멀다. 우리 일행은 다음 일정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Making Flowers of Hopeful Spring Bloom in a Frozen Winter Land

President Wonmo Ku's Russian Campaign

As soon as our group reached the hotel (aptly named the Hotel Vladivostok) and settled into our rooms, I eagerly went into the bathroom. My whole body felt as if it were frozen solid, and I was yearning for the soothing feel of hot water. However, my hopes were quickly dashed when I learned that there was no hot water available at our hotel.



By Wonmo Ku, CEO, Unigen Russia

One fine day in October 1999, while I was working at the Bangi-dong office of Univera Korea, Mr. Bill Lee, our CEO, called me into his office. Sitting inside was a man I had never seen before, with a sturdy build and close-cropped hair. Perhaps because of his keen, intense eyes, I found myself avoiding his gaze. Seeing my reaction, Mr. Lee laughed and introduced the stranger.

“This is th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Institute. He will aid us greatly in our agricultural land development in Russia. Many aspects of our project will require your close mutual cooperation.”

After shaking hands with the Director, we exchanged business cards. Mr. Lee went on.

“My late father was also deeply interested in this project. Assuming that the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e grows steadily and inter-Korean relations become friendlier in future, Primorsky Province in the Russian Far East is an attractive target worth shooting for. The Director here commands a wealth of information about this region. He tells me that he knows of some arable land well-suited to our purposes. Please examine the location closely and do your utmost to secure the land in question”

Before making any decision, Mr. Lee always listens to diverse opinions from those around him and considers a

wide range of angles and possibilities in order to arrive at a logical conclusion. Knowing his circumspection, I was impressed with the importance of the task and resolved to devote myself to its successful completion. At the same time, I wondered if we could really find land conducive to agricultural cultivation in the bitter cold of Russia, where the mercury drops to minus 40 degrees during the winter months.

Upon exiting the office, I spread a map of the world on my desk and pored over it for the rest of the day. I examined the location of Primorsky Province; I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population and the principal means of livelihood available to them.

The next day, I visited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Institute (IADI). Adorning the walls from its very entrance were numerous maps of Primorsky Province, hung in various places and attitudes. Documents written entirely in Russian were strewn all over the desks. As someone who still had trouble with English, I could not help feeling intimidated by the atmosphere inside the institute.

From the staff of IADI, I heard detailed descriptions of Primorsky Province in Russia's Far East. They informed me that the farms in the region, which had formerly produced rice and beans, were currently in a state of neglect owing to

the political situation within Russia, and that it was therefore possible to lease them under advantageous conditions. By investing our capital and North Korea's labor into these farms, they explained, we could build an economic model unmatched by any other in the world, as well as launch a project that would be optimally geared toward the futur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ving had little interest in the subject prior to this point, I found such terms as ‘national unification’ and ‘food war’ jarring and unfamiliar. The land we intended to lease belonged to two farms extending over 8,400 hectares, located some 300km to the north of Vladivostok, in Horolskiy region. Portions of the land were presently being used to grow rice, they noted.

Toward the end of October 1999, I obtained a Russian visa and boarded a plane to Vladivostok, along with several others. Arriving at our destination just two hours after taking off from Gimpo International Airport, in less time than it would take to go from Seoul to Busan by train, I realized that Japan was not the only country that was at once close at hand yet far away.

I passed through immigration and customs to find our interpreter-cum-guide awaiting our party next to the vehicle that would become our ride over the coming days. I don't know whether it was the icy wind that froze our lips or our sense of responsibility at embarking on our mission in earnest, but we traveled the 40km to Vladivostok in complete silence.

It was already growing dark when we arrived in the city of Vladivostok. As soon as our group reached the hotel (aptly named the Hotel Vladivostok) and settled into our rooms, I eagerly went into the bathroom. My whole body felt as if it were frozen solid, and I was yearning for the soothing feel of hot water. However, my hopes were quickly dashed when I learned that there was no hot water available at our hotel. I was perplexed at first, but I reasoned that this might not be so unusual for people who were thoroughly accustomed to the cold. Both Genghis Kahn and Hitler had succumbed before Russia's wall of ice; nonetheless, I wasn't going to wave the white flag so easily. I gritted my teeth, wrapped myself in layer upon layer of the thick

clothing I had brought with me, and waited for sleep. Recalling the saying, ‘No pain, no gain,’ I put faith in the thought that whatever hardships we encountered would lead to proportionately greater rewards.

I woke up stiff and sore, from a combination of jetlag and a night spent tossing and turning on a strange bed. I decided to have a hearty breakfast in preparation for the tough going that lay ahead, but I soon had to give up on this notion as well. Because the working day begins at 11:00 a.m. in Russia, there were no restaurants open for breakfast. Trying valiantly to ignore the rumblings of my empty stomach, I got in the car with the rest of our party and headed for our next destination.

We arrived at the Horolskiy region county office after driving three hours straight. Passing through the dimly-lit corridor, we entered the office of the county magistrate. The magistrate, who appeared to be around sixty, greeted us with a bright smile. The instant we were seated, he opened up an agricultural map of the county and began to explain the current state of farming in the area. Although we could not understand him directly, his enthusiastic tone bespoke his fervent enthusiasm for our project. We posed many questions through our interpreter, but sometimes the magistrate's lengthy reply was translated into a few concise remarks, which made us unsure if his meaning was being fully communicated to us. The meeting lasted for a considerable interval, during which we covered a wide range of issues. We were also able to obtain a good deal of information on the farmland we were interested in obtaining.

But as it is often said, you must always look before you leap, and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We had to see the land with our own eyes. Emerging from the county office, we moved on to the site itself. The widespread farmland, stretching all the way to the horizon, was overgrown with weeds. Stalks of rice peeked out here and there, but they were growing wild, untouched by human hands. We were faced with the daunting task of making hope blossom like spring flowers on this sleeping winter land. Knowing that we still had a long way to go, our group took firm, robust steps toward our next destination.

글로벌 CEO 워크숍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에코넷 회사들이 사내의 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글 리치 라즈가이티스, 판매 마케팅 상무, 유니베라 미국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한국과 미국 에코넷 임원 20여명은 글로벌 CEO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워싱턴의 레이시에 모였다. 전략적, 세계적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우애와 단합을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 또한 서번트 리더십이

직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시애틀 푸짓 사운드의 선상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미국의 독립을 축하했다. 식사 후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어둠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불꽃처럼 어느새 한국 동료들의 입가에도 향긋한 미소가 활짝 피고 있었다.

이틀 후 특허와 트레이드 마크에 관한 흥미로운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우리 동료 탐 홀리한은 철저한 준비와 재치 있는 말솜씨로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다뤄 세미나 분위기를 생기 있게 바꿔 놓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에코넷 회사들이 사내의 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세미나가 끝나고 우리는 오레건 주로 내려가 화이트 새먼



강(White Salmon River)을 따라 래프팅을 했다. 이스트와 웨스트의 임원들이 각각의 보트에 골고루 탑승하여 급류를 타고 내려왔다. 모두가 보트와 한 몸이 되어 급류를 헤쳐나갔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로 똘똘 뭉친 단합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잠수복을 입고 경사가 40도나 되는 강물에 몸을 맡겼던 보디서핑과 스튜어트 오킬트리 유니베라 사장을 비롯하여 여러 임원들이 12미터 높이의 다리에서 물 속으로 과감하게 몸을 던졌던 다이빙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특히 정찬수 부사장은 두 번이나 다이빙하는 담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한가지 잊지 못할 재미있는 기억이 있다. 더 이상 급류로 떨어질 위험이 없다는 가이드의 말에 따라 우리는 모두 순순히 입고 있던 구멍 재킷을 벗었다. 그러나 몇 분 후 가이드는 짜놓은 각본대로 우리에게 거대한 바위를 가리켰으며, 멍하니 바위를 바라보며 방심하고 있던 우리는 그만 급류에 휘말려 모두 보트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물 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던 피터 해퍼만 알로콧 사장 역시 자신도 바위를 보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물에 빠졌다고 크게 웃었다.

다음 날 우리는 이병훈 총괄 사장으로부터 작고한 그의 선친과 생전에 나눴던 대화며 일화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많은 시련과 고난들을 극복하고서야 '에코넷'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그의 말에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가 하달됐는데 5천여 평이나 되는 넓은 새 캠퍼스 부지를 청소하고 불 피울 곳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 날 저녁 깨끗해진 캠퍼스 내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한국의 전통음식인 불고기와 갈비를 먹으며 각자가 앞으로 에코넷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것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깊어가는 밤 속으로 이번 전체 행사 일정 역시 마무리 되고 있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사 경영 전략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었으며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트와 웨스트 가족들 간에 돈독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East and West Leadership Retreat

This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he ECONET companies to discuss critical strategies and positioning around our valuable intellectual property.

By Rich Razgaitis , EVP of Sales and Marketing, Univera USA

In early July, nearly 20 Executives within the ECONET from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gathered together in Lacey, WA, as part of an executive retreat. The focus was to ascertain strategic and global objectives and foster friendship and unity as well as understand the servant-leadership philosophy and apply it to our professional and personal lives.

The event started with a celebration of the Independence Day of the United States on July 4th, where we enjoyed a dinner cruise in the Puget Sound in Seattle; this provided the opportunity to share a treasured American tradition of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while ending the evening with a brilliant display of fireworks. I enjoyed seeing the smiling faces of our Korean colleagues lit brightly by the flashes of fireworks.

The following two days led into an interesting and interactive session on patents and trademarks; no doubt, Tom Hoolihan’s preparation and personality helped bring to life an ordinarily dry subject. This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he ECONET companies to discuss critical strategies and positioning around our valuable intellectual prop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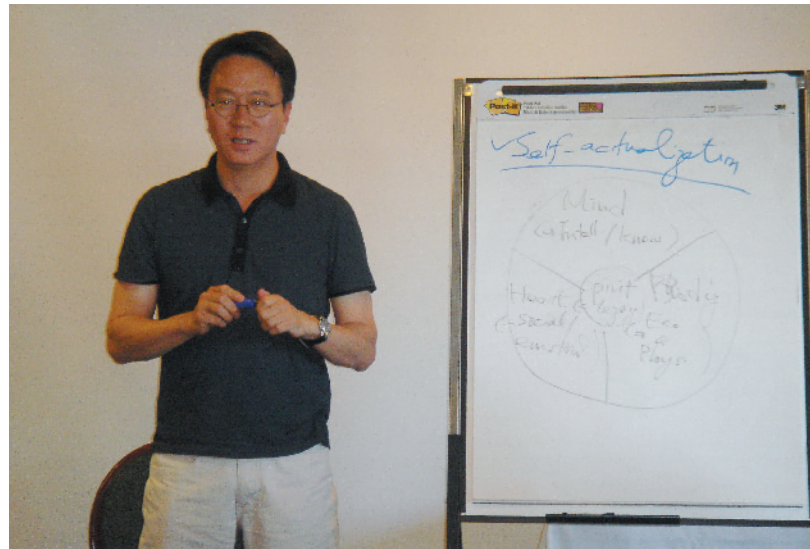
We then traveled to Oregon and shared the experience of whitewater rafting down the White Salmon River; each raft had team members from both ECONET East and West which provided a bonding experience through the thrill of rushing down the whitewater rapids. One favorite memory included us ‘bodysurfing’ down the 40-degree river in our wetsuits and seeing several executives jump from a 40-foot bridge, including Mr. Chungchan Soo (who jumped twice!) and Univera’s CEO, Mr. Stuart Ochiltree.

Perhaps the funniest moment for me was when there was no longer any danger of us falling out of the raft and we were told we could remove our life jackets. Within minutes of doing so, our guide suggested that we look up at the gorgeous layers of rock formation on a 40-foot ledge to our right. Suddenly, Aloecorp CEO, Mr. Peter Hafferman, who had been so cautious and careful as to not only avoid falling out of the raft but also avoid getting wet during the whole ride, mysteriously fell out the back of our raft! After we dragged him back on-board he explained amidst laughter that as he was craning his neck to see the rock formation his body just kept going backwards as well, until he fell out!

The following day Chairman Bill Lee shared touching stories from his past, including conversations with his late father, Chairman Yunho Lee, as well as the various victories and challenges experienced over the decades

within the ECONET that provided both insight and inspiration into the organization we all call home. That final afternoon concluded with a special worksite project on the new 37-acre campus in Lacey where ECONET executives spent time together working on clearing the grounds, building a firepit, and other activities. The evening ended with a beautiful bonfire along with a traditional Korean BBQ, while each individual shared the legacy that they hoped to leave the ECONET.

For me, the time together gave us the opportunity to align ourselves strategically,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servant-leadership, and, finally, it helped to develop a kinship of our family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우리의 일터를 포함한 삶의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우리 말로 번역하면 의사소통(意思疏通)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사전달(意思傳達)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어는 동일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의사전달과 의사소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나무꾼과 신령님의 이야기'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글 송경근 대표 컨설턴트, 하나 컨설팅 그룹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과 '나무꾼과 신령님 이야기'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 잘못하여 그만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 일을 어찌나!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빠뜨렸으니 정말 큰일이네.”

나무꾼은 연못가에 털썩 주저앉아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그 때, 연못 속에서 신령님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아, 왜 울고 있느냐? 무슨 일인지 내게 말해 보아라.”

“네, 하나뿐인 도끼를 연못에 빠뜨려서 나무도 베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령님은 곧 연못 속으로 들어가 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도끼가 네 것이냐?”

신령님은 금도끼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도끼가 네 것이냐?”

이번에는 은도끼를 내보였습니다.

“아닙니다. 그 도끼도 제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쇠로 된 도끼를 내보였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반가워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바로 그 도끼가 제 것입니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그래, 너는 참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신령님은 나무꾼의 정직한 마음을 가늠하게 여겨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나무꾼에게 주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의사전달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말하는 사람(話者) 위주가 아닌 듣는 사람(聽者)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무엇인가를 믿거나 행동을 했을 때에 의사소통은 이루어집니다. 신령님은 “나무꾼아, 왜 울고 있느냐? 무슨 일인지 말해 보아라.”가 바로 듣는 사람인 나무꾼 위주로 말합니다. 나무꾼이 “네, 하나뿐인 도끼를 연못에 빠뜨려서 나무도 베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때 신령님은 도끼의 길이와 무게, 도끼 손잡이와 날의 재질 등등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를 구사하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럴 때 듣고 있는 상대방은 참으로 난감해집니다. 신령님은 나무꾼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곧장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도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금도끼를 보여 주면서, “이 도끼가 네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백 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의 원칙이 의사소통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무꾼은 자신이 잃어

버린 도끼를 설명하려면 못하겠지만 도끼들을 보면 자기의 것인지 아닌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도끼로는 나무를 벨 수 없습니다. 나무꾼이 원하는 것은 나무를 벨 수 있는 쇠도끼입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은 실패입니다. 신령님은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은도끼를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그 도끼도 제 것이 아닙니다.” 은도끼로도 나무를 벨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도 실패입니다. 세 번째 쇠도끼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 도끼가 제 것입니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세 번의 시도 끝에 의사소통이 성공했습니다.

의사전달은 말하는 사람 중심의 일방통행이고, 의사소통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쌍방통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와 의미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잘못 잡힌 라디오 주파수에서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처럼 의사소통은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Communication is one of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elements in every part of our lives, including our workplace. Translated into Korean, the word “communication” is properly expressed by the term uisa sotong in Korean, meaning “mutual understanding of intent.” Until recently, many people used the expression uisa jeondal, or “transmission of intent,” as the Korean equivalent of “communication.” The English word remains the same, but its Korean translation has come to take on a different nuance with the changing times. What, then, is the difference between “mutual understanding” and “transmission”? To better answer this question, let me introduce the example of the well-known Korean folk tale, “A Gold Axe and a Silver Axe.”

By Kyungkeun Song, Chief Consultant, One Consulting Group

Communication and the Tale of “Gold Axe, Silver Axe”



A goodhearted woodcutter was working by a pond, when his axe slipped out of his hands and fell into the water. “Oh no, what shall I do? That was the only axe I owned. I am in trouble indeed.” The woodcutter fell to his knees by the pond and began to sob in distress. Suddenly, the venerable spirit of the pond appeared before him. “Woodcutter, why are you crying? Tell me what is wrong.” “Sir, I’m sitting here with my hands tied because I’ve dropped my one and only axe in the pond.” Upon hearing the woodcutter’s explanation, the spirit went into the pond and re-emerged with an axe in his hand.

“Is this your axe?” he asked, as he held out a gold axe to the woodcutter. “No, Sir. My axe is not made of gold.” “Then, is this your axe?” he asked, offering a silver axe this time. “No, Sir. My axe is not made of silver, either.” Finally, the spirit brought out a plain iron axe. Overjoyed, the woodcutter cried out, “That is indeed my axe! Oh, thank you, kind Spirit!” “Why, what an honest woodcutter you are.” The spirit commended the woodcutter’s honesty and gave him both the axes of gold and silver.

The principal difference between “mutual understanding” and “transmission” is that the former emphasizes the listener rather than the speaker. Mutual understanding occurs when the listener fully grasps the speaker’s intention and thinks or acts accordingly. When the spirit of the pond says, “Woodcutter, why are you crying? Tell me what is wrong,” his utterance focuses on the woodcutter, who is the listener. To this, the woodcutter replies, “I’m sitting here with my hands tied because I’ve dropped my one and only axe in the pond.” Here, the spirit does not ask the woodcutter detailed questions about the length and weight of the axe, or the material of its handle and blade, all of which would require the use of specialized jargon. We generally tend to use numerous terms that cannot be understood by those to whom we are speaking. At such times, the listener is apt to become baffled and perplexed. Instead of asking further questions, the spirit immediately dives into the pond and brings out a gold axe. He shows it to the woodcutter and asks, “Is this your axe?” We see the axiom,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in practice in this particular instance. “No, Sir. My axe is not made of gold.” Although the woodcutter would probably have great difficulty describing the exact nature and appearance of his lost

tool, he can easily pronounce whether an axe he sees before him is his or not. Unfortunately, one cannot cut down a tree with a gold axe. What the woodcutter wants is his iron axe, which is strong enough to fell a tree. Thus, the first attempt at mutual understanding ends in failure. The spirit tries again: he shows the woodcutter a silver axe. Once again, the reply is: “No, Sir. My axe is not made of silver.” A silver axe is similarly ineffectual when it comes to cleaving wood. The second attempt ends in failure as well. Finally, the spirit brings out an iron axe. “That is indeed my axe! Oh, thank you, kind Spirit!” Mutual understanding occurs successfully with the third attempt.

If transmission is a one-way street that privileges the speaker, mutual understanding is a two-way street that accords equal importance to both speaker and listener. For this reason, it is imperative in striving for mutual understanding to discern the speaker’s intention and meaning clearly and precisely. Just as a radio emits static when the frequency is not tuned just right, mutual understanding succeeds only when the two sides tune in to each other with absolute exactitude. Therefore, it is vital not simply to listen, but rather to pay active attention to what is being said.

이들과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은 모두 추억이라는 내 앨범 속 사진들로 고스란히 간직될 것이다.

Host Family



글 이민희, 배재대학교 영문학과 (유니베라 한국, 중부팀 최정희 UP자녀)

에코넷 인턴으로 이 곳에 오기 전부터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낯선 외국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호스트 패밀리와 한 달을 지내며 그들에게서 친 가족 이상으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

활방식의 차이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그 간격을 조금씩 좁혀갈 수 있었다. 우물 밖으로 나와 더 넓은 세상을 본 개구리처럼 나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처음 만난 호스트 패밀리는 톰 홀리한(Tom Hoolihan)부부였다. 톰은 에코넷 미국의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인데 그의 부인 엠마와 세 아이들 (타미, 조이, 에린)은 나와 영민 언니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들은 우리들을 위해 늘 풍성한 만찬을 준비했다. 추수감사절에 먹는다는 칠면조 요리나 밀가루로 빚은 빈대떡 모양에 다진 고기, 야채, 치즈를 넣은 타코(Taco) 등을 맛보면서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렇게 즐거웠던 시간은 입 안의 솜사탕처럼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고, 선물과 편지를 교환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다.

두 번째로 만난 호스트 패밀리는 커리어 우먼인 줄리아 푸(Julia Foo)였다. 줄리아는 유니젠 미국의 연구원인데,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그것을 진정 즐길 줄 아는 여자였다. 톰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보낸 2주 내내 그녀는 우리가 서먹하거나 어색하지 않도록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줬다. 그리고 그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편하게 쉬고 싶었을 텐데도 우리가 미국 문화를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꺼이 황금 같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 번은 그녀와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모두 처음 만난 나를 다정한 친구처럼 맞아줬다. 이들과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은 모두 추억이라는 내 앨범 속 사진들로 고스란히 간직될 것이다.

영어회화 실력이 부족해서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준 그들에게 매번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진 못했지만 서로의 눈빛과 미소를 통해 전달되었을 거라 믿는다. 지금 이렇게 헤어지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행복한 시간을 선물로 준 그들에게 꼭 보답을 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호스트 패밀리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다.



They all embraced us like friends and I will always remember our happy times at dinner that night.

Host Family



By Minhee Lee, Paichai Uni, (Daughter of UP, Junghee Choi, Univera Korea)

Befo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I was worried about getting along with people I had never met before; especially since we are so different in culture and language. However, after a month spent with our host families, I felt as comfortable with them as I do with my own family. The difference in language, culture and lifestyle was overcome little by little as we tried to understand each other. I became as excited as a frog seeing the world outside of the well for the first time.

Our first stay was with Mr. Thomas Hoolihan’s family. Tom is the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General Counsel for ECONET USA. Tom and his wife, Emma, and their three children (Tommy, Joey and Erin) greeted us with open arms. We had a great time. They always set a great table with lots of food for us. One night we had a big turkey dinner, which they usually have only on Thanksgiving Day. Another memorable meal was tacos with ground beef, raw vegetables, grated

cheese, etc. We talked and laughed until late into the night. Our time together seemed to pass as quickly as cotton candy melts in your mouth. When it was time to say goodbye, we took photos together and exchanged cards and gifts.

Our second host was Ms. Julia Foo. Julia is a Research Associate with Unigen USA. She is very confident and satisfied with her life and she knows how to enjoy it. We stayed with her for two weeks and she treated us as friends from the beginning. In her home, as well as the Hoolihan home, we never felt uncomfortable or out of place. Julia spent a lot of time with us and helped us experience the American culture as much as possible. Even though she might have wanted to

take some rest after a long day at work, she placed our needs above her own. One evening, on our way back to her apartment after taking a walk, we met with her friends and had dinner together. They all embraced us like friends and I will always remember our happy times at dinner that night.

It is a pity that I could not convey the happiness and gratitude I felt moment by moment due to my poor English. However, I am hoping they could read how I felt from my gestures and smiles. And, even though we had to say goodbye, I want to return their generosity someday. I want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my host families.

Host Family



10월/11월 서번트 리더십 테마 컬럼

급변하는 기업경영 환경에서 전통적인 리더십 모델들의 대안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월별로 테마를 선정해서 개념과 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을 에코넷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글 김남규 팀장, 에코넷기업본부, 기획인사팀, 남양

10월의 서번트 리더십 테마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계획과 실천’입니다.

“미안해.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일찍 들어가도록 할게”, “중요한 회의가 있어. 다음에 하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소중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가족들에

게 관심을 갖거나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들에게만 인내를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정이 소중하다고 말로만 내뱉을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

지 않으면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뜻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도 올바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행복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획과 원칙이 없으면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런 무관심 속에서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쯤, 한 번 정도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반성도 잠시 이내 다시 무관심한 생활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반복된 무관심은 가족들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맴돕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천합시다. 이 계획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일 수도 있으며, 앞으로 몇 십 년에 걸쳐 도달해야 되는 기나긴 인생의 향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계획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1월의 서번트 리더십 테마는 ‘인내하기’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자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자책하면서 앞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집착하기보다는 반성을 통해 미

래를 바꿔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 저마다 조금씩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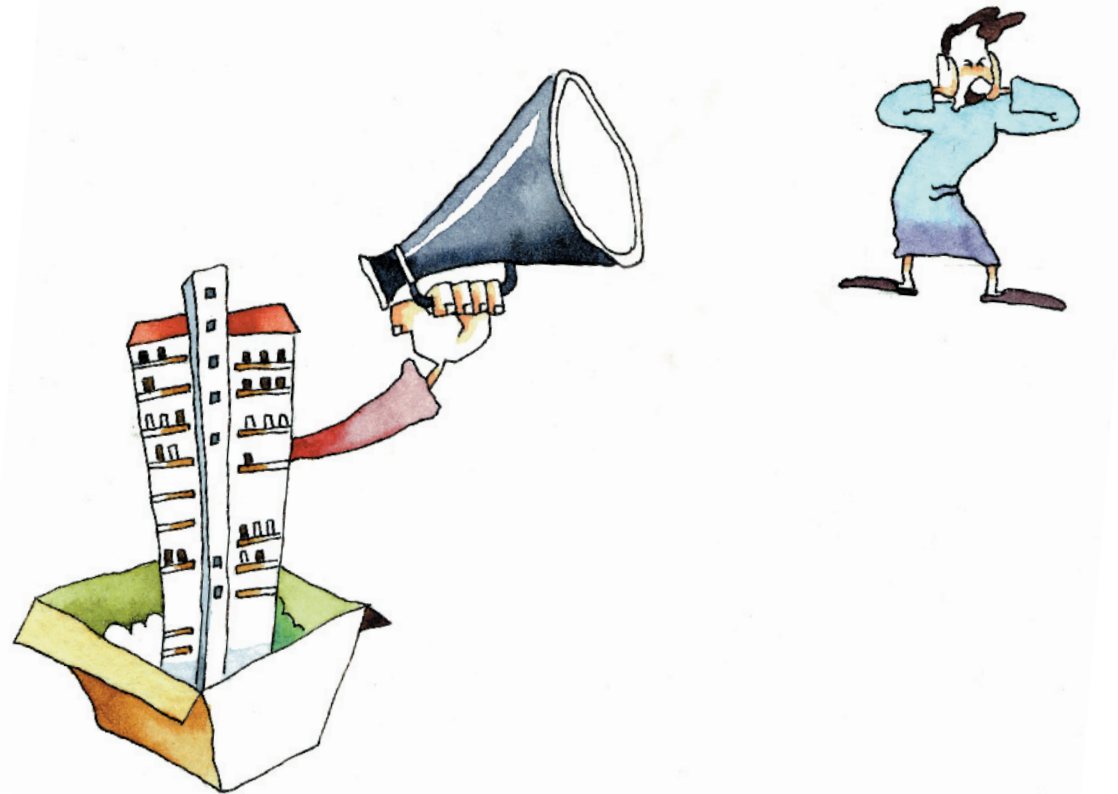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과격한 행동과 발언은 인간 관계를 어긋나게 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 의욕은 커녕 얼른 다른 회사로 옮겨야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부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은 부하직원과 동료들에게 좋지 못한 인식을 심어 주게 됩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 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들은 식물은 쉽게 말라 죽어버립니다. “당신의 기획은 형편없어.”라는 표현을 자주 듣는 직원은 아예 기획을 할 수 없는 직원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하직원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책임감을 일깨우지 않는 상사는 좋은 리더라 할 수 없습니다. 부하직원에게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와 의견 교환을 통해 목표점을 인식시키고 그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GE의 전설적인 리더 잭 웰치가 후임자인 제프리 이멜트에게 했던 말을 참고해 볼 만 합니다. “제프, 난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당신은 입사 이후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난 당신을 내보낼 것입니다.”

Themed Column: Servant Leadership

October/November 2006

In today's rapidly-changing corporate management environment, an approach to leadership that has been gain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models is 'Servant Leadership.' This column selects a theme related to Servant Leadership for each month, explaining relevant concepts and theories and allowing them to be put into practice at ECONET.



By Namkyu Kim, Team Manager, Planning & HRMT, ECONET Korea

The Servant Leadership theme for the month of October is 'Making Plans for a Happy Home and Putting Them into Action.'

"I'm sorry. I'll come home on time once this project is over." "I have an important meeting. Can we take a rain check?" Does any of this sound familiar? They are the kinds of remarks I habitually make in my own life. Many people say that their home is what matters, but in real life, they are unable to make the effort to pay attention to their families or to spend time with them.

Are you selfishly demanding patience and sacrifice from your family, by any chance? It's not enough just to say that your home is what's important; you must set clear goals for the sake of your family and put them into practice.

We make plans and set goals when we embark on something important. If we don't, we could run into problems along the way, or things could take a wrong turn and produce undesirable results. The same applies to the work you do in the company. Successfully

carrying out one's given task is important not only to the individual but also to the company. It is for this reason that we determine specific objectives and make detailed plans.

The happiness of our homes can likewise be unsettled if we do not set the right goals, make the necessary plans, and put them lovingly into practice. Lack of plans and principles leads to lack of interest. When we feel that we have broken too many promises because of such lack of interest, we stop and reflect on our mistakes. But such moments of introspection do not last; soon, we return to the disengaged life we have always led. The repetition and perpetuation of this lack of interest leave deep wounds in our family's hearts.

In order to build a happy home with our family, let's make plans and put them into action. These plans may be basic principles that must be upheld in everyday life, or a lifelong course that must be reached over a period of several decades. Moreover, we must not neglect the effort to continuously check our plans for life to see if they work as planned.

The Servant Leadership theme for the month of November is 'Patience.'

To have patience is to exercise restraint. It is to consider the other person's feelings in a given situation, instead of responding emotionally or reacting impulsively. The majority of us tend to be generous and tolerant of our own mistakes and erroneous actions. We absolve ourselves by reproaching our foolish behavior and resolving never to make the same mistake again. We believe that, rather than obsessing over our past errors, it is better to use the lessons we've learned from them to change our future. At the same time, we must

each of us recognize that our respective actions are problematic to some degree.

We must refrain from letting our anger push us to humiliate another person. Excessive action and aggressive language only serve to drive a wedge between people. "Do you actually have a single thought in that head of yours?" Everyone would be offended by such a comment. Far from motivating the person in question, it might even prompt him or her to consider moving to a different company.

Negative and judgmental remarks instill damaging thoughts in subordinates and coworkers. They say that even plants grow more vigorously when they are lavished with abundant attention and words of love. By contrast, plants that are often subjected to negative comments easily wither and die. An employee who is frequently told, "Your planning is atrocious," will soon become the kind of employee who cannot plan at all.

Of course, a supervisor who only says nice things and fails to stimulate a sense of responsibility in his subordinates cannot be considered a good leader, either. We must show our faith in those we lead. We must make them understand our objectives through constant conversation and exchange of opinion, and provide unstinting encouragement and support as they pursue these objectives. When a given task does not seem to be going well, it would be helpful to remember what Jack Welch, General Electric's legendary leader, said to his successor, Jeffrey Immelt:

"Jeff, I'm your biggest fan, but you just had the worst year in the company... I love you, and I know you can do better. But I'm going to take you out if you can't get it fixed."



황금을 일구는 곳, 유비콤 농장

서울여자대학 세계문화체험 - 러시아 편

“동북아시아 중심에서 유비콤 농장이라는 씨앗은 미래를 향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글 권혜진, 서울여자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유비콤 농장에서 맞이하는 닷새째 밤. 빠듯한 일정 속에서 낯설고 힘들었지만 보람되고 즐거웠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잊을 수 없었던 그 행복한 나날들을 마음 속 일기장에 아로새겨본다.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뱃길로 한 시간, 다시 찾길로 한 시간이면 유비콤 농장에 닿는다. 지금은 끊어진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하나로 연결되려면 이 농장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하니 그 넓이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철로가 열리게 되면 이 농장에서 재배된 작물들이 철로를 타고 러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북한을 지나 우리나라로 곧바로 운송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농장의 설립

취지 또한 깊은 의미를 갖는다. 동북아시아 중심에서 유비콤 농장이라는 씨앗은 미래를 향해 싹을 틔우고 있었다.

3주간의 러시아 체류 마지막 일정은 몽골텐트에서 보내야 했다. 불편한 야전침대와 익숙지 못한 침낭 속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 우리 일행들은 그제서야 이 곳에서의 생활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밤과는 달리 아침은 아름답고 황홀했다.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초원과 그 위에서 꼬리를 흔들며 뛰노는 귀여운 강아지들 그리고 땅과 맞닿아 있는 듯 키 작은 하늘은 유명한 화가의 풍경화를 감상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러시아 문화체험이라는 목적을 두고 서울여자대학교에서 5: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우리 일행은 블라디보스톡 주립 경제서비스대학에서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유비콤 농장에서 나머지 일주일의 보내게되었다. 농장에서의 우리 임무는 황금이라는 약초를 지키는 것이었다. 노란 뿌리 때문에 황금이라고 불리는 이 약초는 3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흘러야 효능과 상품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이 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은 연금술사일지도 모른다. 화려했던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려는 러시아에게 황금이라는 약초를 가꾸는 일은 진짜 황금을 만들어 내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유비콤 직원들이 이 농장에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내는 모습 속에서 러시아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황금을 가꾸고 돌보는 일은 자식을 대하는 부모님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련들 속에서 때론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때론 든든한 버팀목으로 힘이 되어 주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지면서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런 깨달음은 내 마음속에서 욕심과 집착 그리고 아픔이라는 티끌을 걷어내고 있었다. 땅을 다독이는 일은 사람을 키우고 상처 받은 마음들을 치유해 주는 능력이 있는가 보다.

황금을 돌보는 일 이외에도 잊지 못할 것들을 꼽으라면 열 손가락이 모자를 정도다. 그 중에서도 우릴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초록색 몸통의 파리는 가끔씩 우리 주위를 웅얼거리며 맴돌다 흡혈귀처럼 우리 미녀들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하곤 했다. 밭일을 끝내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앞다퉈 달려갔던 농장 앞으로 흐르는 맑고 시원한 냇물 또한 잊지 못할 풍경이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 경관들은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처럼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가능했다.

일주일간의 모든 체류 일정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를 아쉬움과 서운함이 남는다. 처음 몽골텐트가 숙소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런 걱정과 우려와는 달리 우리들은 하루가 다르게 그런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그런 모습을 보며 경험은 사람이라는 나무를 단단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마음의 키는 어느새 한 뼘씩 더 자라고 있었다. 이 농장에서 보낸 일주일의 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하나 둘 쌓여가는 추억들 속에서 행복을 맛봤기 때문이다. 나는 물론 우리 모두 행복했다.

◆ UBICOM : Unigen-Biomass Complex의 약자로서 한랭지성 작물을 재배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유니젠 러시아 영농회사





Ubicom Farm

The Place Where Gold is Cultivated

Seoul Women's University Cultural Experience Team to Unigen Russia

“In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the seed known as the Ubicom Farm was putting forth its shoots toward the future.”



By Hyejin Kwon,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Seoul Women's University

My fifth night at the Ubicom Farm. Flashing by before my eyes are the kaleidoscopic memories of the tough and unfamiliar but nonetheless enjoyable and rewarding experiences I had throughout my tightly-packed itinerary. I try to engrave in my mind's journal those happy, unforgettable days.

An hour's boat ride from Vladivostok followed by another hour by car takes you to the Ubicom Farm. You can get a fair sense of its expansive scale when you consider the fact that the inter-Korean railroad and the Trans-Siberian Railway, as yet separate, must traverse the farm in order to be connected into a single route. Once this lengthy railroad is opened, the produce

cultivated at the Ubicom Farm can be transported directly to Europe via Russia, and to South Korea via the North. This gives the establishment of the farm an even deeper significance. In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the seed known as the Ubicom Farm was putting forth its shoots toward the future.

The last leg of our three-week journey through Russia had to be spent in Mongol tents. Struggling to catch some sleep on uncomfortable camp beds and lumpy sleeping bags, our party finally came to appreciate what it means to live in such remote parts. After spending a painful night, however, we awoke to an intoxicatingly beautiful morning. Plains stretching as far as the eye can



see, delightful puppies cavorting upon them with their little tails wagging, and the sky lying low enough to kiss the earth?the stunning scenery made us feel as if we were looking at a landscape painting by a master artist.

After completing a two-week itinerary at the Vladivostok State University of Economy and Service, our party?selected for this Russian Cultural Expedition through a fierce five-to-one competition among our fellow students at Seoul Women's University-spent the last remaining week of our journey at the Ubicom Farm. Our appointed task at the farm was to look after the medicinal herb known as “Gold.” The herb, whose name derives from the ochre shade of its roots, attains its efficacy and commercial value only after waiting through three long years.

Come to think of it, everyone who works at the farm might well be called an alchemist. As Russia strives to recreate the opulent prosperity of its past, cultivating this herbal “Gold” is just as valuable as creating real gold. In the efforts of the Ubicom Farm workers to build a new and different culture, I could glimpse hope for Russia's future.

Growing and caring for “Gold” was no different than a parent's caretaking of his or her children. Thinking of my own parents, who sometimes embraced me in their ample bosom and became my stalwart pillars of support, I felt a tingling at the end of my nose and a tightness in the corner of my chest. With each day that passed, such revelations lifted away the taints of avarice, obsessiveness, and pain from my heart. The work of nurturing the earth seems to have the power to mature the individual and heal the wounds of the heart.

◆ UBICOM: Short for "Unigen-Biomass Complex." UBICOM is an agricultural company that offers the ideal environment for cultivating crops adapted to cold or frigid climates.



Ten fingers are not enough to count all the unforgettable experiences we encountered at the Ubicom Farm, even besides the work of looking after “Gold.” Not least among them were the flies that occasionally drove us into a frenzy of terror: with their green torsos, they would drone and buzz around our heads before launching surprise attacks on us, their beautiful prey. The spring that flows across the front of the farm was another memorable sight; we would rush toward its clear, chill waters to cool our heated brows after toiling in the fields. Such gifts of nature were possible by virtue of this region's unique geopolitical situation: here as in Korea's demilitarized zone, the borders of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adjoined one another.

I feel a lingering sense of regret at the thought that our weeklong stay is drawing to its end. When I first learned that we would be sleeping in Mongol tents, I was not a little taken aback. But contrary to my initial doubts and worries, our group adapted rapidly to the way of life on the Ubicom Farm. Watching ourselves change, I realized anew that experience is the nutrient that makes a person grow as sturdy and strong as a well-weathered tree. As we headed home, the height of our hearts was already spurting up by a hand's breadth. For as long as I live, I will never forget the week I spent on the Ubicom Farm: I tasted happiness in each day's accumulation of new memories. What's more, the happiness was not mine alone, but shared by everyone in our group.



글 김재승 팀장, CFT팀, 남양

사회는 점차 개인화, 다양화되고 있다. 경제 시장에서 소비자 역시 좀 더 새로운 것, 좀 더 다양한 것을 요구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고 점유하기 위해 앞다퉈 첨단기술과 복합기능을 내세운 신제품들을 끊임없이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요구는 한결음 더 빠르게 변화한다. 그러다 보니 신제품의 생명력은 점점 짧아지게 되는 것이다. 제품 하나에 막대한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판매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카멜레온처럼 시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그에 맞는 색깔로 변신해야 되지만 시시각각 알록달록하게 변하는 미래를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고 불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무한경쟁을 펼쳐야 되는 기업들이 내놓은 돌파구가 바로 CFT (다기능팀, cross-functional team) 전략이다. CFT 전략이란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판매 각 부문이 독립적으로 기능했던 기존의 경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연관성 있는 조직을 통합하거나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다기능팀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지휘 체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가 제품에 최대한 반영되면서도 소비자 원

하는 시점에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남양은 작년 5월 기술영업팀, 연구개발팀, 품질혁신팀, SCM팀, 생산기술팀 등 각 팀의 핵심요원을 선발하여 통합적인 운영체계인 CFT를 구성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CFT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제품개발 일정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뒤 해결방안을 찾아 즉시 실행에 옮기고 있다. 현재는 유니베라 한국의 신제품인 '리니시에' 화장품 출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다. 각 팀 업무와 CFT 활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팀원들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CFT 팀원들은 ERP PI팀 박성완 과장, 연구개발팀 양승원 과장, 방기만 과장, 품질혁신팀 이재현 대리, 김진영 대리, SCM팀 박종민 사원, 최병석 사원, 생산기술팀 천창식 과장이며 기술영업팀 김재승 과장이 팀장을 맡고 있다. CFT 활동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남양의 새로운 기업 문화가 되기를 바란다. 남양 CFT 파이팅!!

Go! Go! Namyang CFT Team

By Kim Jaeseung, CFT Section Manager, Namyang

Our society is becoming increasingly individualized and diversified everyday. Likewise, today's consumers continually demand newer and more variegated products in the economic market. To secure a foothold and increase their share in this diversifying market, companies are pouring out an endless array of new products that boast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complex functions. However, the changing demands of consumers are always one step ahead of their efforts. This is why the currency and longevity of new products are becoming ever short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panies, who must invest a massive amount of resources in R&D, production, marketing, and sales for each new product, this is a serious problem indeed. Although they must become veritable chameleons, promptly transforming their colors in response to shifts in the market, it is no easy task to predict a future filled with such volatile, kaleidoscopic changes.

The CFT (Cross-functional Team) strategy is a new breakthrough devised by companies to survive in the endless competition that wages in this ephemeral and uncertain market environment. Using the CFT strategy, companies move away from the existing method of management, which works by having the various sectors of R&D, production, marketing, and sales function independently of one another. Instead, such sectors become consolidated, or temporarily organized into cross-functional teams for individual projects. In this way, the respective chains of command are integrated into a single system, thus allowing consumer demands to be reflected as much as possible while ensuring the swift and timely introduction of products into the market.

Last May, Namyang selected key members from the Technology Sales Team, Research and Development, Quality Innovation Team, SCM Team, and Production Technology Team to form a comprehensive CFT. The newly-assembled

CFT went into operation this year as a model case. The team meets regularly once a week to share product development timelines, identify problems, and devise solutions which are immediately put into practice. At present, it is concentrating all its energies on Univera Korea's new line of cosmetics, 'Linitie,' and achieving visible results. Despite the added burden of taking part in CFT activities on top of their regular responsibilities, the team members are putting in their best efforts with a firm sense of personal accountability.

Our proud CFT members include: Section Manager Seonwan Park of the ERP PI Team; Section Managers Seungwon Yang and Gimang Bang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eam; Assistant Section Managers Jaehyeon Lee and Jinyeong Kim of the Quality Innovation Team; Chief Jongmin Park and Byeongseok Choi of the SCM Team; and Section Manager Changsik Cheon of the Production Technology Team. The CFT is led by Section Manager Jaeseung Kim of the Technology Sales Team.

With the earnest hope that the CFT's activities will become the new corporate culture for Namyang as it makes the leap to becoming a global enterprise... Here's to Namyang's CFT!!



Jaeseung Kim, Changsik Cheon, Byeongseok Choi, Jongmin Park, Seungwon Yang, Gimang Bang, Jinyeong Kim, Taeok Kim, Jaehyeon Lee

우리집으로의 초대

리건 & 데브라 마일즈 부부의 인터뷰 리건 마일즈 유니젠미국 사장



인터뷰 이세현, 비서, 에코넷 미국

콜로라도와 비교한다면 이곳 생활은 어떠세요?

리건 우리 가족 모두 이 푸른 자연과 나무, 꽃들을 좋아합니다. 여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은 올림피아에서 학교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데브라 올림피아는 무척 살기 좋은 곳이에요. 아름다운 나무와 물과 깨끗한 하늘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콜로라도 못지 않게 올림피아도 좋은 곳입니다.

자녀분 소개 좀 해주세요.

다섯입니다. 제프리는 24살인데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할 때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Price Waterhouse)에서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 다. 한국에 2년간 살아서 한국 사람들과 한국 음식을 무척 좋아합니다. 대학 4학년인 나탈리는 22살인데 네바다의 라스베가스에 있는 몰몬 교회에서 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은 19살이고 대학 2학년입니다. 중앙 워싱턴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파파 머피 피자

자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캇은 16살인데 이제 막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곧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크로스 컨트리 팀에 있습니다. 스캇도 타코 벨(Taco Bell)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막내 엘리자베스(리지)는 4살인데 아주 천방지축입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를 늘 긴장하게 만드는데 마치 젊은 부부 시절로 되돌아 간 기분입니다. 쇼핑하면서 옷을 입어보고 신발을 신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자 이 가족에게는 개 세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도 있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리건 가장 중요한 것은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무척 대견합니다.

데브라 즐거운 가족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고 각자 하기로 마음먹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를 바라고 있어요.

데브라가 보기에 리건의 좋은 면과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리건은 그야말로 디즈니랜드같은 아버지입니다. 항상 재미있고 모두를 웃게 만들죠.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게 있다면 코를 좀 덜 골았으면 좋겠네요.

리건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리건 자신감

데브라 관대함

에코넷에서 일하는 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리건 에코넷은 내가 일했던 직장 중에 가장 도전할 것이 많고 보람도 큰 곳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사업이 번창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 무척 흐뭇합니다. 에코넷의 가치관과 문화를 좋아하며 에코네시안이라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리건 승진하면서 가족과 더불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다들 좋아합니다. 지난 4년간 무척 많은 출장을 다녔는데 가족은 항상 저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데브라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저에게도 기분 좋은 일이에요. 리건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모두 에코넷이 그에게 보여준 신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5년 후 자신을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리건 유니젠이나 다른 계열사 회사에서 일하던지 혹은 이병훈 사장께서 맡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사업이든지 에코넷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천연제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돼야 한다는 목표를 꼭 이를 거라 믿습니다.

5년 후 가족들은 어떤 모습일 거라 생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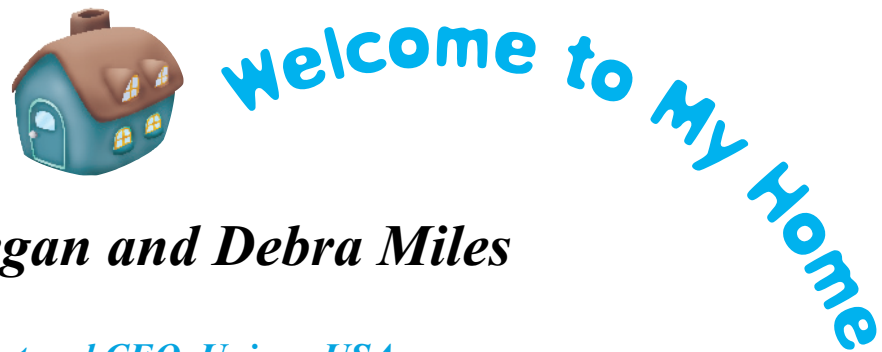
리건 그때면 아이들은 다 나가고 9살이 된 리지만 집에 있겠죠. 적어도 아이들 중 하나는 결혼을 해서 응석 받아주고 함께 놀아줄 손자 손녀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데브라 다섯 중 넷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겠죠. 그 중 셋은 대학도 끝냈을 테니 적어도 둘은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내딸 리지도 더 이상 꼬마 아이가 아니겠죠. 학교를 다니면서 앞으로 펼쳐질 멋진 인생을 막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아나요? 손자 손녀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생각만해도 신납니다.



Welcome to My Home





Interview with Regan and Debra Miles

Regan *President and CEO, Unigen USA*



Interview Sean Lee, Executive Admin, ECONET USA

How do you like this area compared to Colorado?

Regan We really like how green it is and the beautiful trees and flowers. The summers are spectacular. My children like the schools and have made great friends in Olympia.

Debra Olympia is a wonderful community. It is surrounded by beautiful trees, water and clear skies. We loved Colorado and we are loving Olympia.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I have 5 children. They are:

Jeffrey - He is 24 years old and completing his masters degree in accounting. He has accepted a full time job with Price Waterhouse when he graduates. He lived in Korea for two years and loved the people and food. Natalie is 22 years old and is serving a mission for the Mormon church in Las Vegas, Nevada. She is a senior in college and will complete her degree next year. Ryan is 19 years old and a sophomore in college. He is going to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He is a

manager at Papa Murphy's pizza. Scott is 16 years old and a new driver. He will be a junior in high school and is on the cross country track team. He also works at Taco Bell. Elizabeth is 4 years old and has a lot of energy. She is very active and keeps Debra and I very young. She loves to shop and try on lots of clothes and new shoes.

Reporter And they have 3 dogs and one cat.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you in raising your children?

Regan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is raising children with strong values. My hope is that they will learn to work hard, play hard and be honest and earnest in all that they do. They are amazing children.

Debra Providing a home where everyone enjoys being. We want our children to be happy and feel like they can achieve whatever they set their heart upon.



To Debra: What is the one thing you want Regan keep doing?

Debra Regan is our "Disneyland Dad". He is fun and we always laugh with him.

What is one thing you want him to start doing?

Debra Snoring less.

If you had to describe Regan with one word, what would that word be?

Regan Confident

Debra Generous

Has working with the ECONET influenced/changed your life in any way?

Regan Working for the ECONET has been the most challenging and rewarding job I have ever had. I have worked harder than at any other time in my life and it has been wonderful to see the business grow and be successful. I really enjoy the culture and values of the ECONET. I am proud to be an Econetian.

I know there was a lot of good news for Unigen and Regan himself this year, how did it affect the family?

Regan The family is happy with my new promotion because it may mean that I am home more. I have traveled a lot for the past four years and my family has been very supportive.

Debra It is great to see your spouse reap the benefits of a job well done. Regan always does his best and we appreciate the confidence and kindness that the ECONET has shown him.

Where do you see yourself/career in 5 years?

I hope to still be working with the ECONET, either with Unigen or with another company or opportunity that Chairman Bill Lee would like me to be involved in. I fully expect that we will accomplish our vision of becoming the world leader in natural products.

What will change in your family life in the next 5 years?

Regan We will only have one child left at home and Lizzy will be 9 years old. We hope that one or more of our older children will be married and we will have wonderful grandchildren to spoil and have fun with.

Debra We hope to have four of five children through high school, three of the five through college and at least two of them married. Our little Lizzy will not be so little and will be going to grade school with a great start to the rest of her life. Who knows, maybe we will have grandchildren. Our future is exciting to contemplate.

이윤진

에코넷의 건강 매니저 이윤진 대리
아자아자 파이팅~

글 오미선 전임연구원, 천연물연구팀, 유니젠 한국

칭찬받을 분들이 많음에도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추천해 주신 신혜경 대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예쁜 사진을 준비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열 한번째 칭찬릴레이 주인공은 에코넷의 건강 매니저 유니베라 한국 교육팀의 이윤진 대리입니다. 2004년 9월, 서울에 있던 유니젠 사업부가 병천 연구소로 내려 오면서 처음 만난 이윤진 대리는 친한 동료로 지내다가 언니와 동생처럼 가까워진 사이입니다.

깡마르고 작은 얼굴이라 언뜻 보기에 연약하고 말수도 없을 거 같지만 명랑만화 여주인공처럼 언제나 밝은 미소와 시원한 목소리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4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더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더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도 많고 정도 많아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집에서 보내온 단감도 나눠주고, 결혼을 앞둔 동료에게는 직접 마사지까지 해주며 축복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동료들을 누구보다 먼저 챙겨주곤 했습니다.

화장품 전문이던 사람이 식품강사로 업무가 바뀌면서 혹시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식품에 대한 효능까지 조사하면서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대리점에서 이윤진 강사에게 교육받고 싶다는 러브콜이 쇄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더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빠듯한 출장 일정에도 더 많이 노력하고 배워야 한다며 학교까지 다니는 억척스러움과 부모님을 떠나 혼자 생활하면서도 힘든 내색하지 않는 끈기함을 본받을 만합니다.

요즘도 가끔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어찌다 서울에 올라갈 때면 친언니처럼 따뜻하게 챙겨줍니다. 사회 생활을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풀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아내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내 맘 같은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는데 좋은 동료가 이렇게 많은 에코넷에서 오래오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에코넷의 건강을 위해 다리품을 팔며 열심히 뛰어다닐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오랫동안 외롭게 혼자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안쓰럽기도 했는데 하루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꼭 이뤘으면 합니다.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따뜻한 가을 속에 즐거운 에코넷이 되길 바랍니다.



Yunjin Lee 유니베라 한국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Assistant Manager Hyekyoung Shin, who generously recommended me among so many others who are deserving of praise. Regretfully, I was not able to provide a better picture of myself owing to the late notice.

In this eleventh installment of the Commendation Relay, the spotlight falls on ECONET's 'health manager' and member of Univera's Education Team, Assistant Manager Yunjin Lee. I first met Yunjin in September 2004, when Unigen's Business Division relocated from Seoul to the research facility in Byeongcheon. We began as friendly coworkers, and

ECONET's Health Manager Yunjin Lee! Hip Hip Hooray!

By Misun Oh, Researcher, Natural Product Chemistry, Unigen Korea



eventually came to be as close as real sisters.

Thin as a rail with a tiny face, Yunjin appears at first glance to be frail and withdrawing. In actuality, however, she always enlivens the atmosphere around her with her bright smile and energetic voice. For this reason, I have grown deeply attached to her despite only having known her for four short months.



Possessed of a warm heart that always puts others first, Yunjin readily bestows her affection and her sympathy. In the fall, she shared the sweet persimmons her family sent her from home. She once gave her blessings to a coworker who was soon to be married by personally giving her a massage. Moreover, Yunjin has always been the first to take care of any coworker who might have fallen ill.

Yunjin formerly specialized in cosmetics, so when she was newly installed in the post of food lecturer, I was concerned that she might become disheartened by the unfamiliar work. But when I saw her devoting all her energies into her new job, even going the extra mile to research the efficacy of various types of food, I was filled with awe and admiration. I have heard that, as a result, she now gets a steady stream of phone calls from dealerships asking for training sessions with her. Yunjin's success made me realize once again that good results will always come if you do your best in your given place, even if that place is not somewhere you wished to be. Equally worthy of emulation are her assiduity and fortitude. In spite of a hectic schedule filled with business trips, Yunjin insists that she must

try harder and study more, and puts this belief into practice by attending school. She lives alone, far away from her parents, but you would never know it from her brave demeanor.

We still keep in touch and get together from time to time; whenever I am in Seoul, she looks after me like a real sister. I believe that finding someone with whom you can share strength and encouragement as you navigate the choppy waters of professional life is as difficult as finding a four-leaf clover in a field of grass. They say you have succeeded in life if you have one friend who truly knows your heart. I hope that I will long be a part of a workplace as full of wonderful people as ECONET is. Even now, I can vividly picture Yunjin running from one place to the next, busily working for the health of everyone at ECONET. It sometimes pains me to see her living by herself for so long; I hope that she soon finds that special someone with whom she can build a happy home.

The season of harvests is upon us. I wish ECONET a happy fall that is warmer and more bountiful than ever.



작은 고추가 맵다 퀴타 테렐

유니베라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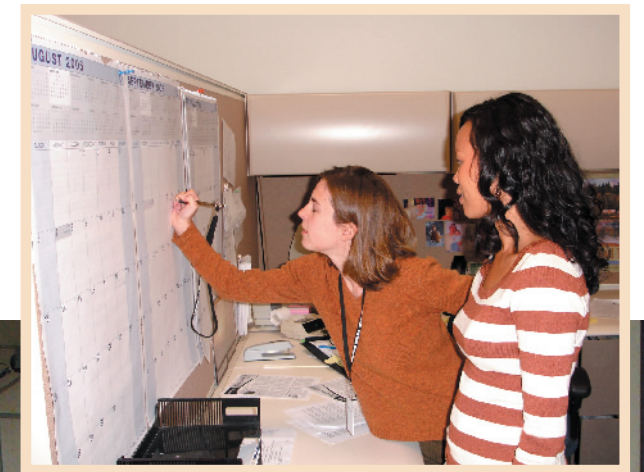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한다. 식지 않는 그녀의 열정에 나를 포함하여 웨어하우스 팀 모두가 그녀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 크리스토퍼 존 사카리아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격언처럼 퀴타를 잘 표현하는 말도 없을 것이다. 비록 체구는 작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거인이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 속에 담아 놓

은 것을 고스란히 말로 꺼내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저마다 그녀에 대해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상사와 부하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 린다 월킨스

글 랜디 그로버, Southhaven 물류센터 과장, 유니베라 미국

입사한 이후 퀴타와 나는 줄곧 함께 일해왔다. 뛰어난 성적으로 입사한 그녀는 한국과 미국 내 다른 회사들이 요청하는 제품 주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웨어하우스에 필요한 제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모든 제품들을 관리하고, 판매와 관련된 부서와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를 취한다.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매사에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녀에게 이러한 업무는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나에게 퀴타는 가족이나 다름없다. 그녀의 투철한 직업 윤리라든지, 가치관, 성실성 등 칭찬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한 마디로 그녀는 최고의 동료이자 친구이다. 이제까지 기회가 없었다면 꼭 그녀와 친구가 되어보길 권한다.

- 에드 클라크

퀴타는 대화를 통해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안다. 또한 새로운 것

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에 적극적이다. 그녀는 인내와 정확성을 요구하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상사와 부하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 린다 월킨스

퀴타는 7개월된 오스카에게는 좋은 엄마이자 우리에겐 훌륭한 동료다. 유통부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나를 교육시킨 사람이 바로 그녀였는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유니베라에서 그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큰 행운이다. 40시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근무 시간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으니 말이다.

- 사라 펠

퀴타는 친근하고 따뜻한 친구이자 회사에 헌신하는 성실한 동료이다.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활기 있는 근무



“With small packages come great surprises!”

Quita Terrell

Univera USA

“It is very refreshing to work with a pleasant person who is not only a good supervisor, but also a good human being.”

- Linda Wilkins



By Randy Grover, Warehouse Manager, Southaven, Univera USA

Since I started my career with this company, Quita and I have worked closely together. She is a very detail-oriented person with a keen eye for detail and follow-through.

Quita does most of the ordering of our products from Korea and other companies in the U.S. She also does the scheduling for all incoming products, to ensure that our products are in the warehouse for sale to our

customers and associates.

She might sit in a cubical back by the warehouse, out of sight, but she plays a big roll in how the company functions. Quita has always been a joy to work with and I look forward to a great working relationship with her.

She has so many different hats she wears each day,

communicating with different departments, especially sales, since they like to change things to keep all of our customers and associates happy.

Quita and her husband Joe are proud parents of a baby boy, Oscar Mosses Terrell. He was born on January 18, 2006.

When Ed first interviewed her, she was the first one to take his test to get into the company. He knew as soon as she had finished that she was the one for the job. She had an excellent score on her test. Ed interviewed 9 other people after her, but no one could come close to her skills. She is a great addition to the team and a part of our family.

Of all the assistants I have had, Quita has been a family to me. I could go on and on about her work ethic, sense of values, and integrity, but to sum it up in a few words, she has been the best co-worker and friend. If you have not had a chance to get to know her, please take the time to do so.

- Ed Clark

Quita is one of those quiet types that takes everything in, processes it, remembers it, applies what she has learned from it and discards the rest. Her discernment is applied equally to all subjects, all conversations, and all the people. She seems to be able to take the good out of a conversation and discard the bad or inappropriate. I think what I have been struck by the most is how knowledgeable and responsible she is. Yet she is so open and interested in learning new things and new ways to do things. She is infinitely patient and demands accuracy without being demanding or demeaning. It is



very refreshing to work with a pleasant person who is not only a good supervisor, but also a good human being.

- Linda Wilkins

I admire Quita for being a great mother to 7-month-old Oscar and a great companion at work. Quita trained me when I first started in the distribution department so I have learned a lot from her. I am lucky enough to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her at Univera. Since we spend 40 hours a week at work, we might as well spend it with people we admire, respect and care about.

- Sarann Pell

I must say that Quita is one of the coolest people I have ever worked with. Quita, being so petite, it is hard for her to be noticed, but if you ask anyone she works with, they would definitely agree that she is living proof that “with small packages come great surprises!” It is so hard to express your feelings about people you really appreciate because words cannot always paint the picture you wish the rest of the world could see.

Quita has been wonderful to work with! She has also gone to bat for us multiple times and showed dedication to the distribution department as a team player, friend and co-worker. Hard work, passion and diligence all describe the kind of work environment Quita provides for us here in the distribution department. On behalf of myself and the Warehouse team, we would like to thank Quita for her undying passion for excellence that keeps us all at our best.

- Christopher John Sakaria

유니베라 화장품의 새 이름, 리니시에!

글 이주연 팀장, 마케팅 본부 BM팀, 유니베라 한국

유니베라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뉴브랜드 화장품, 리니시가 드디어 9월 18일 첫 선을 보였다. 기존 5~6개의 화장품 브랜드는 앞으로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정리되고 리니시에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유니베라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리니시에는 'Natural Revolution from a Mystic Garden'이라는 컨셉으로 에코넛만의 강점인 파이토 로직스(Phyto Logix)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 및 유포(UP) 그리고 대리점 사장님들의 현장 의견과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획되었다.

우선 파이토 로직스로 체계적으로 분석된 1만여 종의 약용식물들 중 피부에 가장 좋은 효능과 효과를 주는 성분들만을 선별했다. 이렇게 엄선된 성분들을 복합 처방하여 어떠한 피부 유형과 조건에도 최대한의 치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화장품으로 개발한 것이다. 에코넛의 수직 계열화 속에서 탄생된 진정한 고기능성 프리미엄 화장품이라 할 수 있다.

개발 단계에서 85명의 유포를 대상으로 코즈메틱 프로슈머(Cosmetic Prosumer)를 운영하면서 디자인, 네이밍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내용물 개발에 있어서 3차에 걸쳐 전 제품에 대한 품평을 실시했는데, 최근 마지막 품평을 마친 그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제품 사용 후 확연하게 변화된 피부 테스트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그 획기적인 효능과 효과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화장품 로고, 용기 및 패키지를 디자인한 프랑스의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데그립 고베'는 리니시에 브랜드가 추구하는

혁신적이면서 신비롭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그대로 제품에 담아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을 선보였다.

앞으로 리니시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니베라 글로벌 정책에 맞춰 미국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수출될 예정이다. 머지않아 유니베라 리니시에 제품이 전세계인들로부터 사랑 받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잡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피부가 살아나는 비밀의 공간 리니시에!
www.linitie.net



Linitie

Skin Healing Program 리니시에

The New Name for Univera Cosmetics, *L'initie!*

By Serah Yi, Manager, BM team, Marketing, Univera Korea

L'initie, Univera's ambitious new brand of cosmetics, made its anticipated debut on September 18. As the existing five or six brands are phased out over the next three years, the torch will be passed on to L'initie, which will establish its place as the cosmetics brand that represents Univera Korea.

Mystic Garden,' L'initie is based on ECONET's unique technological breakthrough: Phyto Logix. The hands-on experience and opinions of consumers, dealers, and UPs (Univera Planners: Univera's traveling sales representatives) were fully reflected in the creation of this new brand.

Embodying the concept, 'Natural Revolution from a First, following a systematic analysis of over 10,000



medicinal plants using the Phyto Logix technology, only those ingredients proven to be the most beneficial and effective in enhancing skin health were carefully selected. These ingredients were then combined to produce a line of cosmetics capable of achieving the maximum healing effect for any type of skin, under any conditions. L'initie can thus be described as a genuinely high-performance, premium brand of cosmetics born in the process of ECONET's vertical hierarchization.

During the development stage, Univera operated a Cosmetic Prosumer program comprising 85 UPs and actively reflected their opinions in important decisions, such as product design and name selection. In particular, three product evaluations were conducted across the entire line during the content development phase. At the end of the final evaluation, every one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with amazement. Confirming with their own eyes the dramatic improvement that took place since they began using the products, they repeated praise after praise regarding L'initie's efficacy and performance.

The logo, containers, and packaging for L'initie were created by France's internationally-renowned design and brand management company Desgrippes Gobe. The world-class designs unveiled by Desgrippes Gobe perfectly express the innovative, mysterious, and sophisticated image espoused by the L'initie brand.

Over the coming weeks and months, L'initie will not

only be launched in Korea but also be exported around the world, starting with the U.S., in accordance with Univera's global policy. It is Univera's hope that in the not-too-distant future L'initie will mark its place as a global brand beloved by consumers the world over.



Skin Healing Program **L'initie**

www.linitie.net



여유의 섬, 빅토리아 아일랜드

여행지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 생경한 풍경을 통해 낯익고 익숙했던 것에서 얻을 수 없었던 신선함과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

글 이재은 상무, 에코넷기업본부, 남양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는 여행지는 어느 곳일까? 사람마다 취향과 여행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곳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그 동안 여행했던 곳 중 하나를 추천하라면 빅토리아 아일랜드를 추천하고 싶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시애틀로 가는 동료들이라면 이곳을 반드시 들러보길 바란다. 시애틀에서 업무를 마치고 휴가를 이용하여 이 섬을 여행하고자 한다면 여름철 성수기에는 인기가 높기 때문에 사전 예약은 필수다.



시애틀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해 약 1시간 40분만에 도착한 빅토리아 아일랜드는 깨끗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작은 도시였다. 캐나다 소유의 섬이기에 출입국 수속을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고풍스러운 유럽식 건물들을 보는 순간 그러한 번거로움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음은 어느새 설렘으로 들뜨게 되었다. 선착장에서 내려 버스로 시내관광을 하다가 부처스 가든(Buchart Garden)에 이르렀다. 예전에는 석회석 광산이었던 곳을 정원으로 개발해 운영하는 부처스 가든은 세계 각국을 테마로 다양한 꽃과 나무들로 아름답게 꾸며 놓았다. 천국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곳곳에 나라마다 색색의 다양한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다. 에코넷에서도 약용식물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부처스 가든처럼 꾸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선착장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이어진 거리를 산책하며 황금빛 푸른 물결 위에 떠있는 하얀 보트들을 구경하면서 이국적인 정서와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Vancouver Island

다음 날 아침 분주한 출근시간에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며 모처럼 찾아온 나만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여행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여유가 아닐까. 일상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이러한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면 일상 생활은 삶이라는 긴 여행의 전부가 아닌 그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여행지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 생경한 풍경을 통해 낯익고 익숙했던 것에서 얻을 수 없었던 신선함과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평범한 일상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한 층 더 여유로워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터에서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우리 에코네시안들에게는 여행지가 선사해주는 여유로움으로 가득 찬 풍요로운 나날이 될 것이다.



Haven of Leisure, Vancouver Island



There is a sense of novelty and freshness in encountering strangers and unfamiliar landscapes that one cannot find in the familiar place.

By James J. E Lee, Managing Director, CKO, ECONET Korea

What destinations inspire us with their novelty and freshness? It is no easy task to recommend an ideal location, since everybody travels according to their own tastes and purposes. But if I were to choose just one place among those I have personally visited, it would be Vancouver Island. If there are any colleagues traveling to Seattle from Asia, I particularly urge them to stop by this scenic island. Securing reservations in

advance is a must during the summer peak season, especially for those wishing to use their vacation time to visit the island after completing their business in Seattle.

Leaving from Seattle early in the morning, I arrived on Vancouver Island after an hour and 40 minutes of travel. Victoria, the moderately-sized city on the



Vancouver Island

island's southern tip, gave an impression of cleanliness and openness. I had to pass through immigration to enter Vancouver Island, which is part of Canada, but one look at Victoria's old European-style buildings was enough to wipe away any feeling of annoyance and replace it with excited anticipation. Descending from the dock, I set off on a bus tour of the city and eventually arrived at the Butchart Gardens. Converted from a limestone quarry, the beautiful Butchart Gardens is home to a wide variety of flowers and trees from all over the world, arranged by country and theme. Brightly blooming flowers of all colors and shapes adorned the grounds, so that one could easily imagine the scenery of heaven looking something like this. It struck me that ECONET, like the Butchart Gardens, could also benefit from arranging its medicinal plants to be viewed at a single glance.

After unpacking my bags at the hotel, I took a turn around the docks. Strolling along the streets lined with centuries-old buildings, I gazed at the white boats as they floated on blue waves flecked with gold and immersed myself in the novel pleasure of walking amid exotic scenes.

The next morning, over a leisurely cup of coffee, I relished a rare moment of peace and quiet while others were busily heading to work. Could it be that this is one of the chiefest pleasures of travel? Escaping the everyday grind and enjoying moments of leisure allow us to recognize that our daily routine is a small part of the journey of life. Moreover, there is a sense of novelty and freshness in encountering strangers and unfamiliar landscapes that one cannot find in the familiar place. If we retained the same respect and appreciation for difference in our regular environment, our lives would be much more capacious and leisurely. The same applies for the workplace: such an attitude would enrich our ECONET community by filling our days with restful calm.

알림 Announcement

社告

지난 7월 7일 레이시에서 진행된 임원 워크샵에서 ECONET 회사이름을 내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표준화 하였습니다. 에코넷웨이에도 지난호부터 아래와 같이 회사명칭을 표준화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 에코넷웨이 편집팀

During the Executive Workshop held at Lacey, Washington on July 7, it was decided that ECONET company names would be internally standardized as follows. ECONET Way has also began using the following standard names from previous issue. We ask all ECONETIANS to be mindful of the names.

..... ECONET Way Editor's Desk

◆ 회사명칭 표준화 / Standard Names

1. 에코넷 한국 / ECONET Korea
2.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3.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4. 남양 / Namyang
5. 에코넷 미국 / ECONET USA
6. 알로콥 미국 / Aloecorp USA
7.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8.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9. 힐탑가든 / Hilltop Gardens
10.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11. 알로콥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에코넷기업본부 / ECONET Korea

1 제18회 자연건강식품박람회(SANA), 이태리 볼로냐, 2006년 9월 7일~10일



자연건강식품박람회(SANA)는 유럽에서 영양, 건강, 환경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영양 분야에서는 유기재배 상품과 다이어트 상품, 특정한 영양상의 효용을 가진 상품들 및 관련 기계, 기구들이 전시되었으며 건강 관련으로는 약초, 약용식물 및 추출물, 식물 및 생약요법(phytotherapy)을 위한 상품, 자연 화장품, 보강식품, 개인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상품과 기구, 동종요법, 비주류의약품, 자연치료법 및 수양법, 그리고 헬스 클럽, 온천시설 등이 소개되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기술과 상품이 다수 전시되었다.

18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Natural Products, NUTRITION-HEALTH-ENVIRONMENT (SANA: Salone Internazionale del Naturale, ALIMENTAZIONE-SALUTE-AMBIENTE);

Bologna, Italy; September 7-10

International exhibition of Natural Products(SANA) contributes greatly to our understanding of recent European trends in the fields of nutrition, health, and the environment. Organic products, diet products, and products with specific nutritional properties, as well as related machinery and equipment were on exhibit in the nutrition sector this year. Exhibits on health included herbs, officinal plants and extracts, herbal and phytotherapeutic products, natural cosmetics, food supplements, and products and equipment for personal prevention and care. Homeopathy, non-conventional medicines, natural therapies and disciplines, fitness centers, and thermal establishments were also introduced. In the environment sector, various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ologies and products were on display.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2 CCMS자율관리사무국 현판식



2006년 8월 8일 CCMS자율관리사무국의 현판식이 있었다. CCMS자율관리사무국은 전사적 프로그램인 고객불만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 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자율관리자인 김영환 사장 직속으로 운영된다. 자율관리사무국은 예상되는 고객의 불만이나 실제 발생된 불만 사항을 접수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불만관리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고객만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고객의 소리를 경영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고객이 만족하는 유니베라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Plaque-Hanging Ceremony for the CCMS Office

Univera's CCMS Office held a plaque-hanging ceremony on August 8, 2006. The CCMS Bureau is an organization charged with the introduction, operation, and inspection of the company-wide Consumer Complaint Monitoring System (CCMS). It reports directly to President Youngwhan Kim, who serves as the Supervising Monitor. The CCMS Office will serve as a customer service center, preempting anticipated customer complaints, canvassing actual complaints, and communicating the results of such monitoring back to our customers. Thus, it will minimize customer complaint and, furthermore, take active measures to satisfy customers. With the birth of the CCMS Office, Univera has taken the first steps toward becoming a company that truly satisfies its customers by allowing their voice to be reflected in company management and policy.

3 2006 상반기 우수 대리점 및 영업국 해외법인 방문



지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유니베라 소속 우수 대리점 사장단은 천연물 생산의 본거지 중 하나인 유니젠 러시아 농장과 현지법인을 방문했다. 또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2005 우수 영업국인 순천 대리점의 UP 10명이 알로콥 중국을 방문하여 신축 중인

농장 숙소등 등을 둘러보고 하이난 섬의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했다.

Tour of Overseas Subsidiaries by Outstanding Distributors and Sales Offices



From September 9 through 12, the presidents of Univera's outstanding distributors (first half of 2006) visited Russia for a tour of Unigen's local plantation and office, which constitute one of our base camps for the production of natural materials. On 0000 (insert date), 10 UPs from our Suncheon distributor, voted Sales Office of the Year in 2005, visited Aloecorp China, where they toured the farm's lodging facilitie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and took in the natural beauties of Hainan Island.

4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자원봉사활동



8월 23일, 유니베라 김영환 사장, 정찬수 부사장은 영업기획팀, BM팀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하여 환아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생일축하와 놀이로 환아는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Volunteer Activities at the Yonsei Severance Hospital

On August 23, Univera's President Youngwhan Kim and Executive Vice President Chansoo Chung, accompanied by the members of the Sales Planning Team and the Brand Managing Team, visited the Severance Hospital and spent a day of fun with the pediatric patients. Birthday celebrations and various games put joyful smiles on the faces of both the children and the volunteers.

남양 / Namyang

5 챔피언 임명식



김영태 남양 사장과 임원진은 지난 9월 4일 월례조회에서 6-Sigma 지도 업체인 유원 컨설팅 손동훈 대표로부터 챔피언 인증을 받았다. 이번 챔피언 임명식은 6-Sigma 활동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금년 2월과 8월 두 차례 실시한 챔피언 교육의 종료에 따른 것이다. 남양은 이번 챔피언 교육을 통해 6-Sigma 활동에 강한 리더십과 인적, 물적 지원의 의지를 드러냈다.

Naming the Champion

During the monthly meeting on September 4, Namyang President Youngtae Kim and his executive staff were conferred for the Champion Certification by Donghoon Son, CEO of Six Sigma Leadership firm U-Win Consulting. This certification followed the completion of two Champion Training sessions, which were held in February and August of 2006 for the swift



establishment and vitalization of Six Sigma activities. Through this latest Champion Training, Namyang demonstrated not only strong leadership but also willingness to provide personnel and material support for Six Sigma activities.

6 '리니시에' 첫 출시 기념



2006년 09월 14일 목요일, 유니베라 한국 신제품 '리니시에'가 첫 출고를 맞아 전 직원이 기념 촬영을 했다. 임직원들은 함께 촬영하면서 온 세상에 '리니시에'라는 이름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마다 가슴속 깊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했다. 오랜 산고(産苦) 끝에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직원들의 노고는 '리니시에' 출시로 봄눈 녹듯 사라졌다.

Celebrating the Launch of L'initie

On Thursday, September 14, 2006, the entire staff of Univera posed for a group picture in commemoration of the first shipment of L'initie, the company's innovative new line of cosmetics. As they gathered before the camera,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alike sent up an earnest prayer from the bottom of their hearts for the name of L'initie to spread far and wide across the globe.

Like a mother who holds her baby in her arms after hours of painful labor, everyone at Univera felt the memory of their hard work dissolve as if snow melts away under the spring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7 유니젠 사옥 리노베이션 Grand Open 및 유니베라 리니시에 발매식



유니젠 한국은 올해 2분기부터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옥 리노베이션을 마무리하고 지난 9월 1일 이병훈 총괄사장 등 내외 귀빈 150여명을 모시고 Grand Open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유니젠 한국은 새롭게 단장된 내외부 시설과 견학코스를 고객 및 외부방문객들에게 공개했다.

이번 유니젠 한국의 사옥 리노베이션은 천연물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유니젠 생명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과 연구자산에 대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유니젠 한국의 사옥은 국내 최대의 민간천연물연구소의 위용을 더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방문객을 위한 주 출입구를 새로 마련하였고, 1층 로비에는 그 동안 유니젠 한국이 수집, 보유한 2천 여종의 국내의 식물자원이 전시되고 있다. 연구시설도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변경과 인테리어를 보강했다. 유니젠 한국은 이 행사를 계기로 외부방문객과 고객을 위한 견학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세계최고의 천연물연구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유니베라의 화장품 새브랜드인 '리니시에'의 발매식도 함께 개최되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Grand Opening of the Renovated Unigen Headquarters and the Launching of Univera's L'initie



Unigen Korea recently wrapped up the extensive renovation of its corporate home, which began in the second quarter of 2006, and held a Grand Opening ceremony on September 1 amid the attendance of more than 150 VIPs, including Chairman Bill Lee. During this event, Unigen Korea unveiled to customers and outside guests its newly-refurbished indoor/outdoor facilities and educational tour courses.

The renovation project was aimed at raising the public profile of the Unigen R&D Center, which is cementing its place as a hub of natural products research, as well as of the center's R&D activities and assets. Through this renovation, Unigen Korea's headquarters have taken on the prestigious distinction of being the country's largest private research facility dedicated to the development of natural products. To begin with, a new main entrance has been added for the use of visitors and guests. On exhibit in the first-floor lobby are over 2,000 species of plant resources from Korea and abroad that Unigen Korea has collected and retained over the years. In order to provide a more efficient and comfortable environment for R&D, the center's facilities now sport a modified structure and reinforced interior design. This Grand Opening marks the beginning of Unigen Korea's plans to open its doors to educational tours of its various facilities, and thus

to actively utilize its R&D Center as a place where customers and outside visitors can see and experience the finest in natural products research. Also drawing the attention of participants at this day's festivities was the simultaneous launching of Univera's new brand of cosmetics L'initie.

8 The American Society of Pharmacognosy 참석

유니젠 한국 생명과학연구소의 김동선 박사, 도선길 박사, 남정범 연구원은 미국 Arlington에서 열린 제 47회 'The American Society of Pharmacognosy'에 참가하여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유니젠 한국의 연구팀은 UniBEXTM에 대한 발표로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받았다.

Attendance at the 47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Pharmacognosy

Dr. Dongseon Kim, Dr. Seongil Doh, and Research Fellow Jeongbeom Nam of Unigen Korea's R&D Center attended the 47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Pharmacognosy (ASP) in Arlington, Virginia, where they gave both oral and poster presentations. Numerous conference participants expressed fervent interest in Unigen Korea's research team regarding their presentation on UniBEXTM.

에코넷 미국 / ECONET USA

9 데렉 홀 부회장의

Natural Products Insider와의 인터뷰

천연물 산업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Natural Products Insider'에 에코넷 미국 데렉 홀 부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지난 7월 게재되었다. 아래에 기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CONET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첫째, 풍부한 자연물질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입니



다. 우리는 제약회사 수준의 천연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인간에게 건강 삶을 제공하고 활력을 주는 특별한 세포들을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제품들을 세계화하여 2011년까지 세계 최대의 천연제품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회사 규모를 확대하여 성장하는 것은 물론 타회사와의 합병을 통해서도 이를 이룩할 계획입니다.

발전 방향에 있어 차별화 전략은 무엇입니까?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가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수직적 합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비용 절감을 통해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로 이러한 수직적 합병을 하지만 우리는 제품의 품질 향상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 문화를 직원들은 물론 유니베라 라이프 사이언시즈의 배급자들에게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섬기는 이 문화야말로 미래에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http://www.npicenter.com/news/exec_Articles.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NPI Interview with ECONET USA President Derek Hall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an interview with Derek Hall, Vice Chairman and CEO of ECONET USA, published in NPI (Natural

Products Insider) this past July. You can find the entire interview at the link below:

http://www.npicenter.com/news/exec_Articles.aspx

How would you describe the ECONET's objectives?

-To bring the bounties of nature to all mankind. We conduct pharma grade R&D on natural products and use the discovery process to uncover unique molecules with the potential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ages.

- To globalize the products and become the largest products company for the world by 2011; this we will accomplish both by organic growth as well as by acquisition.

What is unique about the organization and its approach?

We spend millions of dollars to do it right. We endorse vertical integration in an effort to control the quality all the way from the "farmer to the family." Large corporations spend millions on vertical integration with the expectation of a huge return on their investment by controlling the costs. We might actually put cost into the system to ensure the product quality. Lastly, we endorse the culture of servant leadership among our employee base as well as in the Univera Life Sciences distributor organization. We are convinced that this culture of serving others by whatever means is possible will truly define us in the generations to come.

10 메이슨 카운티 10살 어린이 올스타팀 에코넷 미국에 감사의 뜻 전달

메이슨 카운티 10살 어린이 올스타팀은 사흘 동안 8개 팀이 참가한 워싱턴 호프 토너먼트에서 2등을 차지했고 그 영광을 에코넷 미국에 돌렸다. 에코넷 미국은 메이슨 카운티 10살 어린이 올스타팀의 팀원들과 부모들이 에코넷 미래 캠퍼스 부지를 청소해 준 것에 감사하며 600달러의 후원금을 지급했으며, 이 후원금이 팀의 토너먼트 참가비용으로 쓰여졌다.

Mason County 10-Year-Olds All-Star Team Expresses Its Appreciation to the ECONET



The Mason County 10-Year-Olds All-Star Team would like to thank the ECONET for their support and sponsorship, which enabled them to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The team members and their parents completed a clean-up project on the new campus and the Company awarded them with a \$600.00 sponsorship, which paid for all of their uniforms and a 3-day tournament in Hoquiam, WA. With 8 teams participating in the playoffs, the ECONET team received 2nd Place honors. Way to go, boys!

11 에코넷 가족 잔치



지난 8월 19일 토요일에 레이시의 에코넷 회사들은 페데랄웨이의 Enchanted Park에서 “가족 대잔치”를 가졌다. 세살부터 십세살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이가 되어 물을 튀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점심 식사를 하자마자 모두 다시 신나는 미끄럼타기와 친구들과의 웃음꽃 피우기로 돌아갔다. 오후가 저물기 시작하고 수영하기가 즐겁게 느껴지자 이번에는 모

두 롤러코스터와 범퍼카 타기로 옮겨갔다. 좋은 날씨와 더불어 에코넷 동료들과 오후 시간을 보내기엔 안성맞춤인 날이었다.

ECONET Family Fun Day



On Saturday, August 19th, ECONET companies in Lacey had ‘FAMILY FUN DAY!’ at Enchanted Park in Federal Way, WA. Children, ages 3 to 53 enjoyed splashing in the water. After a quick bite to eat, it was back to exhilarating slides and laughs with friends. When the afternoon drew to a close, and it became too cold to swim - everyone moved to the rollercoaster and bumper cars for some great evening entertainment. It was truly a beautiful sunny day, and a great way to spend an afternoon with our fellow ECONET members.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12 유니베라 7차 연례 컨벤션 개최

8월에 유니베라의 7차 연례 컨벤션이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의 미라지 호텔에서 열렸다. 미국과 캐나다 각 지역에서 온 2000여명이 넘는 Associate들이 “월드비전 2011”에 참석했다. 컨벤션은 8월 23일 블루다이아몬드 디너로 시작하여 26일의 블랙 타이 축제 로 끝났다. 이 컨벤션은 비영리 자선 단체인 유니베라 Serve First의 공식 출범이기도 했다. 영양 부실 어린이들에게 필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Serve First는 백만불 상당의 식사 대용 음료 Ageless Essential을 기부했으며 유니베라 Associate들은

\$91,000 이 넘는 현찰을 기부했고 현재도 모금에 참가 중이다. 오아시스 라이프사이언시스에서 유니베라 라이프사이언시스로의 공식 사명 변경이 발표 후 스티븐 와일과 웬디 와일이 서번트 리더십을 반영하는 봉사심과 인격, 그리고 청렴함을 보여준 이들에게 수여하는 이연호 상을 수상했다.



첫번째 롱 칼니스키 고객 헌신상은 근면성과 고객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아 South Haven 물류 센터 과장인 Randy Grover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올해의 Associate 상은 놀라운 판매 성적을 기록한 Al 과 Jan Keranen 부부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다른 어떤 유니베라 팀보다 많은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 Associate들을 가진 조직을 만들었다. 유니베라 미국의 첫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10명의 유니베라 한국 플래너들과 4명의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유니베라 한국의 김영환 사장은 유니베라 미국의 새 사장이 된 스투어트 오킬트리에게 선물을 증정했는데, 선물은 바로 매년 유니베라 Associate들을 서울로 초대함으로써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체 축하행사는 핑크 플라밍고의 공연과 함께 막을 내렸다.

Univera's 7th Annual Convention



In August, Univera's 7th Annual Convention was held at the Mirage hotel in Las Vegas, Nevada. Over 2,000 associates from across the U.S. and Canada participated in “World Vision 2011.” The convention started with the Blue Diamond dinner on August 23 and ended with the Black Tie Gala on August 26. The convention was also the official launch of Univera Serve First, a non-profit charity. Dedicated to providing essential nutrition to malnourished children, Serve First contributed \$1 million dollars worth of Ageless Essentials™ - a meal-replacement drink and Univera Associates donated more than \$91,000 in cash, and are still contributing.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Univera LifeSciences' official name change from Oasis LifeSciences™, Dr. Stephen and Wendy Weil were presented with the Yun Ho Lee Award which recognizes those who demonstrate service, character and integrity in the spirit of Servant Leadership.

The first Kalnitsky Customer Commitment Award was given to Randy Grover, Warehouse Manager at our South Haven Warehouse, who was selected for his hard work and commitment to customer care. The Associate of the Year Award was given to Al and Jan Keranen who have demonstrated stellar business success - building an organization that represents more new Gold, Platinum, Diamond and Blue Diamond Associates than any other Univera team. To celebrate the new beginning for Univera USA, 10 Univera Korea Planners and 4 Univera Employees also attended the convention. The President and CEO of Univera Korea, Mr. Young Whan Kim, presented the new president and CEO of Univera USA, Stuart Ochiltree, with a gift that will allow Associates of Univera USA to annually travel to Seoul to experience the Korean culture. The celebration ended with dancing to the music of the Pink Flamingos.

알로콥 미국 / Aloecorp USA

13 분기별 우수사원 - Joe Quinones

텍사스 라이포드에서는 2006년 2/4분기 동안 알로콥 및 힐탑 가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수 사원 프로



그램이 실시되었으며, 그 첫 영예는 알로콥의 제품 감독관인 Joe Quinone에게로 돌아갔다.

알로콥 라이포드의 모든 가족들은 그가 주어진 어떠한 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성심껏 해내는 사람이라는 데 동의한다. “조(Joe)는 제가 필요로 하는 샘플들이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축하해요! 조와 한 팀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Employee of the Quarter - Joe Quinones



During the second quarter of 2006, we started the Employee of the Quarter program in Lyford, Texas, for Aloecorp and Hilltop Gardens employees. Our first award recipient elected was Joe Quinones, Production Supervisor for Aloecorp. A very well deserved award!

Other co-workers agree that he is always on time

and is a very hard-worker. “Joe has worked hard to ensure that the samples I require reach me in a timely manner. Congratulations, Joe! We are very proud to have you on our team!”

힐탑가든 / Hilltop Gardens

14 힐탑 가든 신사옥 건설

최근 힐탑 가든은 신사옥 건설에 착수했다. 약 110여 평의 부지에 세워질 신사옥은 행정 사무실로 사용되



며, 힐탑 가족들의 휴식 공간 및 미래의 힐탑가든 스토어에서 판매하게 될 제품의 웨어 하우스로도 활용된다.

Hilltop Gardens New Office Building

Hilltop Gardens recently began construction on their new Office Building. The roughly 4,000-square-foot building will not only serve as the administrative offices for Hilltop Gardens and provide break facilities for Hilltop employees, but also include approximately 1,400 square feet of warehouse space for products that will be sold in the future Hilltop Gardens Store.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15 유니젠 러시아 사무실 이전소식

유니젠 러시아는 지난 7월 5일 러시아 연해주 청사 옆(14 Aleutskaya St.) 구 사무실에서 다라가야레츠키 카 뒤(103-A Okeansky Prospekt)에 위치한 건물



의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4층 전체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공간도 넓어졌고, 건물 뒤로 바다 풍경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새로운 사무실의 주소와 연락처

103-A 4th Floor, Okeansky Prospekt,
Vladivostok, Russia, 690002

Tel : 7(국가번호) - 4232-42-20-95

Fax : 7(국가번호) - 4232-42-13-36



Relocation of Unigen Russia's Offices

On July 5, Unigen Russia relocated from its old home (14 Aleutskaya St.) near the Maritime Province government offices to the fourth floor of 103-A Okeansky Prospekt, behind. Occupying the entire fourth floor, the new offices command wider spaces and a spectacular view of the ocean.

Updated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103-A 4th Floor, Okeansky Prospekt,
Vladivostok, Russia, 690002

Tel : 7(country code) - 4232-42-20-95

Fax : 7(country code) - 4232-42-13-36

알로콥 중국 &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 Namyang China

16 중국 현지 법인 Aloecorp China/Namyang China BSC Workshop

중국 현지 법인 Aloecorp China/Namyang China는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2박 3일동안 BSC Workshop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Workshop은 에코넷 한국의 이재은 상무 및 김남규 팀장이 참가하여 그동안 중국 현지 법인 자체 BSC 교육에 있어 미흡했던 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첫날 에코넷 의미에서부터 BSC 개념 및 필요성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각 개인별 2007년도 BSC 관점에 의한 목표 및 전략합의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Aloecorp China/Namyang China BSC Workshop



Aloecorp China and Namyang China, local subsidiary companies in China, hosted the BSC Workshop event from September 12th to September 14th. In particular, CKO, James Lee and Planning & HR Manager, Namgyu Kim of ECONET Korea also participated in this workshop, making it a meaningful event where the drawbacks of BSC education in local offices gained the opportunity for improvement. On the first day, implications of ECONET and the concept as well as the necessity of BSC were shared. Individual goals and strategies regarding the BSC perspective for 2007 were presented.

17 중국 현지 법인 제 1농장 숙소



중국 고대 건축 양식으로 건축된 제1농장 내 직원용 숙소를 9월 중순 완공예정에 있다. 총 22개 방 최대 80명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2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대식 주방 공간 및 한국 출장자를 위한 공간, 만능사무소 및 농장사무소, 향후 임시 공장건축 사무소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그동안 농장 내 임시 숙소 및 워크샵 장소였던 대나무집에서 거주하며 많은 고생을 했던 직원들의 숙소를 해결함으로써 복지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Chinese Local Subsidiary Companies Build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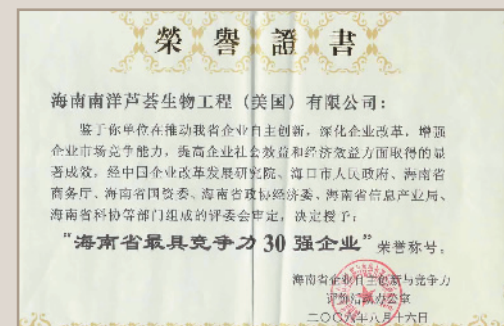
Employee housing on farm property number 1, designed in the architectural style of ancient China, will be completed in mid-September. A total of 22 rooms lodge up to 80 people in the two story building. A modern-style kitchen, rooms for guests from Korea, offices for farms, temporary offices for factory construction are to be built. The building will resolve accommodation problems that workers have been struggling with, living in temporary bamboo houses, enhancing corporate welfare.

18 중국 현지 법인 한상준 사장 해남성 10대 경제 인물 선정 및 Hainan Aloecorp 해남성 30대 경쟁력 보유 기업 선정

지난 8월 16일 중국 현지 법인 한상준 사장은 해남 성 10대 경제 인물로 선정되어 성정부로부터 증서

및 현판 등을 받았다. 10대 경제 인물로 선정된 인물로는 해남성내 최대 음료 기업이며 중국내 10대 음료회사인 예수그룹의 회장, 중국내 5대 항공사인 해남항공 회장 등이 포함되었으며 해남성 내에 진출해 있는 일본 Mazda 자동차 등 유수의 기업인을 제치고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중국 현지 법인 Hainan Aloecorp은 해남성 30대 경쟁력 보유 기업으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President Sangjoon Han of Chinese Local Company Voted as Top 10 Economic Figures in Hainan Province & Hainan Aloecorp Voted as Top 30 Companies in Hainan Province



On August 16, President Sangjoon Han of the Chinese local company was voted as Top 10 Economic Figures in Hainan and received a certificate and a tablet from the government in recognition. Included among the Top 10 Economic Figures were the President of Yesu Group, the largest drink company in Hainan Province and one of the top 10 drink companies in China, and the President of Hainan Airlines, one of the top 5 airline companies in China. President Sangjoon Han was elected over other powerful businessmen such as representatives of Mazda Automobiles currently positioned in Hainan Province. The Chinese local company Hainan Aloecorp also added to the festivities by being voted as the top 30 companies in Hainan Province with competitive power.

신입사원 / New Hire



▲ 최상태 팀장, 재무팀, 예코넷기업본부, 예코넷 한국/ Sangtai Choi, Manager, Finance Team, ECC, ECONET Korea



▲ 김기두 대리, 경영정보팀, 예코넷기업본부, 예코넷 한국/ Kidoo Kim, Assistant Manager, Management Information Team, ECC, ECONET Korea



▲ 이민구 사원, 전략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Mingu Lee, Strategy & Planning Team, Univera Korea



▲ 이재연 사원, 마케팅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Jaeyeon Lee, Marketing Planning Team, Univera Korea



▲ 고정민 사원, 교육팀, 유니베라 한국/ Jungmin Ko, Education Team, Univera Korea



▲ 이혜진 사원, 교육팀, 유니베라 한국/ Hyejin Lee, Education Team, Univera Korea



▲ 박용하 팀장, 품질혁신팀, 남양/ Yongha Park, Manager, Quality Innovation Team, Namyang



▲ 박창호 차장, 경영기획팀, 남양/ Changho Park, Deputy General Manager, Management Planning Team, Namyang



▲ 강승원 팀장, 총무&인사팀, 유니젠 한국/ Seungwon Kang, Manager, Administration Team, Unigen Korea



▲ 송만섭 팀장, 품질관리팀, 유니젠 한국/ Manseob Song, Manager, QC Team, Unigen Korea



▲ 김희양 사원, 생리활성검정팀, 유니젠 한국/ Heeyang Kim, Researcher, Bioassay&Discovery Team, Unigen Korea



▲ 어윤정 사원, 총무&인사팀, 유니젠 한국/ Younjung Eo, Administration Team, Unigen Korea



▲ 김민정 사원, 품질관리팀, 유니젠 한국/ Minjung Kim, QC Team, Unigen Korea



▲ 서지은 사원, 천연물연구팀, 유니젠 한국/ Jieun Seo, Natural Products Chemistry Team, Unigen Korea



▲ 고진숙 사원, 천연물연구팀, 유니젠 한국/ Jinsook Ko, Natural Products Chemistry Team, Unigen Korea



▲ 임경진 사원, 생산팀, 유니젠 한국/ Kyoungjin Lim, Manufacturing Team, Unige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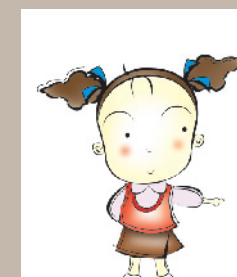
▲ 론 님, 건축관리, 예코넷 미국/ Ron Gnyp, Maintenance Personnel, ECONET USA



▲ 에드윈 카마우아, 총무, 예코넷 미국/ Edwin Kamauoha, Associate General Counsel, ECONET USA



▲ 수잔 헤이거, 홍보 부사장, 예코넷 미국/ Susan Haeger, Vice President of Corporate Communications & Governmental Affairs, ECONET USA



▲ 하이드 헨스, 비서, 예코넷 미국/ Heidi Hansen,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ECONET USA



▲ 래터렐 클라인, 물류센터,
유니베라 미국/
Laterrell Cline, Warehouse
Personnel, Univera USA



▲ 니콜라스 포먼, 물류센터,
유니베라 미국/
Nicholas Foreman, Warehouse
Personnel, Univera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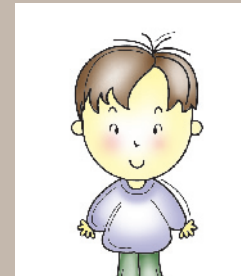
▲ 완다 잭슨, 물류센터,
유니베라 미국/
Wanda Jackson, Warehouse
Personnel, Univera USA



▲ 엔젤 서라노, 고객관리팀,
유니베라 미국/
Angel Serrano, Customer Care
CSR, Univera USA



▲ 에릭 심스 주니어, 물류센터,
유니베라 미국/
Eric Sims Jr, Warehouse
Personnel, Univera USA



▲ 데이브 플레밍, 영업 상무,
유니베라 미국/
Dave Fleming, Director of Sales
(US), Univera USA



▲ 케넌 버틀러, 데이터 입력 사원,
유니베라 미국/
Kenan Butler, Data Entry
Clerk, Univera USA



▲ 네이던 주다, 연구보조,
유니젠 미국/
Nathan Judah, Research
Assistant, Unigen USA



▲ 덕 린치, 판매&마케팅 상무,
유니젠 미국/
Doug Lynch, Vice President of
Sales and Marketing,
Unigen USA



▲ 바바라 앱스, 사업개발 상무,
알로Corp 미국/
Barbara Apps,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
Marketing, Aloecorp USA



▲ 제이슨 스미스, 물류센터,
유니베라 미국/
Jason Smith, Warehouse
Personnel, Univera USA



▲ 라타나 스티븐스, 물류센터,
유니베라 미국/
Latanya Stephens, Warehouse
Personnel, Univera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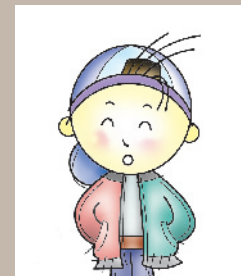
▲ 아만다 울프, 고객관리팀,
유니베라 미국/
Amanda Wolf, Customer Care
CSR, Univera USA



▲ 샌드라 소콜로브스키, 물류센터,
유니베라 미국/
Sandra Sokolowski, Warehouse
Personnel, Univera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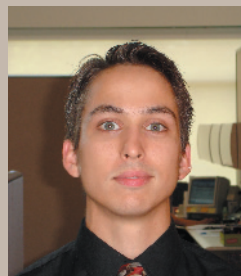


▲ 벤자민 메리멘, 물류센터,
유니베라 미국/
Benjamin Merryman, Warehouse
Personnel, Univera USA



▲ 웨인 맥쿤, 영업부사장,
알로Corp 미국/
Wayne McCune, Vice President
of Sales, Aloecorp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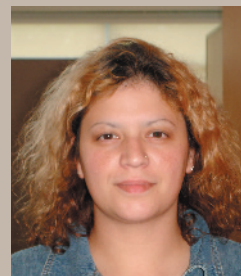
New Hire



▲ 블레이크 마이너, 고객관리팀,
유니베라 미국/
Blake Miner, Customer Care
CSR, Univera USA



▲ 태미 심슨즈, 고객관리팀,
유니베라 미국/
Tammy Simmons, Customer
Care CSR, Univera USA



▲ 디온 모린, 고객관리팀,
유니베라 미국/
Dionne Morin, Customer Care
CSR, Univera USA



▲ 안젤라 바이론, 고객관리팀,
유니베라 미국/
Angela Bayron, Customer Care
CSR, Univera USA



▲ 소니타 넬슨, 고객관리팀,
유니베라 미국/
Sonita Nelson, Customer
Care CSR, Univera USA

승진 & 부서이동 소개/ Promotions & Transfers



◀ 민병국 차장, 총무팀, 유니젠 한국 ⇨
SCM팀, 남양, 차장
Byounggug Min, Deputy General Manager,
General Affairs Team, Unigen Korea ⇨
Deputy General Manager, SCM Team,
Namyang



◀ 데렉홀, Board Vice, 에코넷 미국 ⇨
Chairman/Holdings CEO
Derek Hall, Board Vice, ECONET USA ⇨
Chairman/Holdings CEO



▲ 실라 헤이즌, 고객관리팀,
유니베라 미국/
Sheila Hazen, Customer Care
CSR, Univera USA



▲ 진 메이빈, 고객관리팀,
유니베라 미국/
Jean Maybin, Customer Care
CSR, Univera USA



▲ 아메드 버살리, 고객관리팀,
유니베라 미국/
Ahmed Bersali, Customer Care
CSR, Univera USA



▲ 데이브 네쉬, 영업(캐나다) 상무,
유니베라 미국/
Dave Nash, Director of Sales
(Canada), Univera USA



▲ 웨슬리 허프, 영업 부사장,
유니베라 미국/
Wesley Huff, Executive Vice
President of Operations,
Univera USA



◀ 윤경수 부사장, 에코넷기업본부, 에코넷 한국 ⇨
에코넷 미국, CSO
KS Yoon, Executive Vice President, ECC,
ECONET Korea ⇨
ECONET USA, Chief Strategy Officer



◀ 제니퍼 김, 문화담당, 에코넷 미국 ⇨
인사부 담당, 에코넷 미국
Jennifer Kim, Culture Department
Executive Assistant, ECONET USA ⇨
ECONET Human Resources
Representative, ECONET USA



◀ 안젤리타 레이방, 고객관리부, 유니베라 미국 ⇨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에코넷 미국
Angelita Rabang, Customer Care CSR,
Univera USA ⇨ Compliance Specialist,
ECONET USA



◀ 스튜어트 오킬트리, CCO, 에코넷 미국 ⇨
사장, 유니베라 미국
Stuart Ochiltree, Chief Cultural Officer,
ECONET USA ⇨ CEO and Chief Cultural
Officer, Univera USA



◀ 마사 존슨, 고객관리부 상무, 유니베라 미국 ⇨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상무
Martha Johnson, Director of Customer Care,
Univera USA ⇨ Director of Process
Management and Chief of Staff



◀ 에리카 클레멘스, 마케팅 코디네이터,
유니베라 미국 ⇨ 임원 행정 보조, 유니베라 미국
Erica Clemmens, Marketing Coordinator,
Univera USA ⇨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Univera USA



◀ 사라 쇼, 회계 주임, 유니베라 미국 ⇨
영업&마케팅 분석가, 유니베라 미국
Sarah Shaw, Accounting Supervisor,
Univera USA ⇨ Sales and Marketing
Analyst, Univera USA



◀ 사테 사카리아, 세일즈 코디네이터, 알로컴 미국 ⇨
물류 센터 주임, 유니베라 미국
Sete Sakaria, Sales Coordinator, Aloecorp USA ⇨
Warehouse Supervisor, Univera USA



◀ 캐티 힐러리, 물류창고 사원, 유니베라 미국 ⇨
물류 센터 반장, 유니베라 미국
Katy Hilleary, Warehouse Staff, Univera USA ⇨
Warehouse Lead, Univera USA



◀ 크리스틴 네일즈, 품질, 교육주임,
유니베라 미국 ⇨
고객관리팀, 과장, 유니베라 미국
Kristen Neils, Supervisor of Quality and
Training, Univera USA ⇨
Manager, Customer Care, Univera USA



◀ 리건 마일즈, President & COO, 유니젠 미국 ⇨
Presidnet & CEO, 유니젠 미국
Regan miles, President & COO, Unigen USA ⇨
Presidnet & CEO, Unigen USA

Promotions & Transfers

경조사 소식 /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 축하합니다.

1) 지난 9월 7일 영업기획팀 조은철 사원의 예쁜 딸 출산을 축하합니다.



2) 지난 9월 10일 서울 영업팀 백재열 대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 분 행복하세요!

3) 신인수, 김훈경 주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사내 커플로 아름다운 사랑을 가꾸었던 두 사람의 결혼식에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시: 2006년 10월 28일 오후 2시
- 장소: 청주 명암타워

◆ Congratulations

1) Congratulations to staff member Eunchull Cho (Sales Planning Team) on the birth of his beautiful daughter, born September 7.

2) September 10 was the wedding day of Assistant Manager Jaeyeol Paek (Seoul Sales Department). Best wishes for the happy couple!

3) Congratulations on the upcoming wedding of staff member Insoo Shin and senior staff member Hunkyong Kim, an office couple that has long been nurturing their love! Please come to share in their special day.
Date and Time: October 28, 2006, at 2:00 p.m.
Location: Myoungam Tower, Chungju

남양 / Namyang

◆ 축하합니다.

1) 지난 7월 26일 생산기술팀 박동규 사원의 건강하고 예쁜 첫딸(수향) 출산을 축하합니다.



2) 지난 9월 10일 품질혁신팀 김진영 대리의 예쁜 딸(도연)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1) On July 26, staff member Donggyu Park (Production Technology Team) greeted his first daughter, Suhyang. Congratulations on a healthy and beautiful little girl!

2) On September 10, little Doyeon, the lovely daughter of Assistant Manager Jinyoung Kim (Quality Innovation Team), celebrated her first birthday. Best birthday wishes!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지난 8월 28일 품질혁신팀 채진희 주임의 조모님께서 별세 하셨습니다.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The grandmother of senior staff member Jinhee Chae (Quality Innovation Team) passed away on August 28.

알로콥 미국 / Aloecorp USA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지난 7월 3일 알로콥 생산처리담당Production Processor 마리아 멘도사의 조모님께서 87세의 고령으로 별세하셨습니다.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The grandmother of Maria Mendoza, Production Processor for Aloecorp, passed away on July 3, 2006 at age 87.

◆ 축하합니다.
• 힐탑가든 제리 필그림 부사장의 손자 로건 제임스 코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필그림 부사장의 장녀 글렌다 코틀의 차남인 로건은 지난 7월 11일 체중 8파운드 2.5온스, 신장 21인치로 태어났습니다.

◆ Congratulations
• Congratulations to Jerry Pilgrim, VP of Hilltop Gardens, on the birth of his grandson, Logan James Cottle. He was born on July 11, weighing 8 lbs 2.5 oz. and he was 21 inches long. He is the second son from Mr. Pilgrim's oldest daughter, Glenda Cottle.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생일자 소식 10 ~ 11
Happy Birthday

Birthday in October & November



◆ (10/4) 문길성
Gilsung Moon



◆ (10/19) 김영대
Youngdae Kim



◆ (10/1) 오선택
Suntack Oh



◆ (10/2) 박영수
Youngsu Park



◆ (10/3) 이규남
Gyunam Lee



◆ (10/17) 이민구
Minku Lee



◆ (10/18) 안기억
Keeuk An



◆ (10/18) 김유수
Yousoo Kim



◆ (10/22) 신영익
Youngok Shin



◆ (10/31) 신인수
Insu Sin



◆ (11/7) 심진우
Jinwoo Sim



◆ (11/20) 정의선
Uisun Jung



◆ (11/22) 최영재
Youngjae Choi



◆ (11/24) 추명주
Myungjoo Chu



◆ (11/25) 이성열
Sungyul Lee



◆ (11/25) 전익표
Ikpyoh Jun



◆ (10/03)
소니타 넬슨
Sonita Nelson



◆ (10/13)
다나 산달
Donna Sandhal



◆ (10/17)
완다 잭슨
Wanda Jackson



◆ (10/18)
사라 월
Sarah Wall



◆ (11/1)
리차드 라즈가이트리스
Richard Razgaitis




◆ (11/4)
지넷 히스
Ginette Hicks



◆ (10/7)
빅토르 세르다
Victor Cerda



◆ (10/8)
다비드 실바
David Silva



◆ (10/12)
호세 오르티스
Jose Ortiz



◆ (10/30)
아델라이도 에르난데스
Adelaido Hernandez



◆ (11/1)
호세 안헬 마르티네스
Jose Angel Martinez



◆ (11/2)
에반 모일란
Even Moilan



◆ (11/6)
캐리 젤
Carrie Jelle



◆ (11/9)
샘 라이트
Sam Wright



◆ (11/18)
제니 헌츠맨
Jennifer Huntsman



◆ (11/23)
제니퍼 베인터
Jennifer Bainter



◆ (11/23)
마커스 호드넷
Marcus Hodnett



◆ (11/29)
제니퍼 링크
Jennifer Link



◆ (11/2)
실바 토레스
Silvia Torres



◆ (11/4)
후안 살라사르
Juan Salazar



◆ (11/11)
마르셀리노 디아스
Marcelino Diaz



◆ (11/17)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Carlos Rodriguez



◆ (11/20)
헤수스 알마구에르
Jesus Almaguer



◆ (11/21)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Maria Teresa Rivera



◆ (11/30)
라타냐 스테파니
Latanya Stephens

유니젠 미국
Unigen USA





◆ (10/20)
타오 트린
Thao Trinh



◆ (10/21)
리네 버틀러
Linnea Butler



◆ (10/27)
아베이싱히 파드마프리야
Abeyasinghe Padmapriya



◆ (11/1)
바비 하나
Bobby Hanna



◆ (11/22)
세실리오 몬탈보
Cecilio Montalvo



◆ (11/23)
클레멘테 바우티스타
Clemente Bautista



◆ (11/24)
밥 스미스
Bob Smith



◆ (11/29)
사투르니노 무니스
Saturnino Muniz



◆ (11/29)
비르히니아 마르티네스
스 Virginia Martinez

힐탑가든
Hilltop Garden





◆ (11/1)
메이 홍
Mei Hong



◆ (11/12)
치 지아
Qi Jia



◆ (11/28)
더그 린치
Doug Lynch

알로콥
Aloecorp





◆ (10/2)
블랑카 코르테즈
Blanca Cortez



◆ (10/5)
안토니오 카스트로
Antonio Castro



◆ (10/29)
헥터 다미안
Hector Damian



◆ (10/3)
사바스 갈베즈
Sabas Galvez



◆ (11/13)
어거스틴 레이스
Agustin Reyes

Happy Birthday

기억에 남는 여름휴가 사진 응모 당첨자 소개!



최우수상 모래위의 브래던

마우이로의 가족 여행 때 찍은 사진인데 모래 위에서 노는 것만으로도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다. 아이들이 조그만 것으로도 즐거워하는 것, 그 얼마나 값진 것인가!

제출자 : 바비 하나, 연구원, 천연제품과, 유니젠 미국(10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First Prize Winner Braden on the Sand

I like this picture because it shows how much fun a young boy can have just playing in the sand on a family vacation in Maui. Kids are happy with the little things in life, which is priceless!

Submitted by Bobby Hanna, Research Associate, Natural Product , Unigen USA
(A gift certificate worth \$100 will be awarded)

Winners of unforgettable photos from summer vacation!



우수상 제 2의 신혼여행

결혼 후 오랜만에 아내와 제주도로 휴가를 갔었는데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기억에 남았었구요~ 사진 콘테스트에 당첨되면 아내에게 예쁜 선물을 주면서 신혼 때처럼 항상 예쁘게 살자고 하겠습니다. ^^

제출자 : 윤석훈 대리, 경영정보팀, 에코넷 한국
(5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Second Prize Winner A Second Honeymoon

My wife and I took a vacation to Jeju Isl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while since our wedding. It was a memorable trip?my wife loved it! If I win the photo contest, I'll give her a beautiful gift and say, "Let's always live our lives as if we were newlyweds!"

Submitted by S.H Yoon Assistant Manager, Management Information Team, ECC, ECONET Korea
(A gift certificate worth \$50 will be awarded)



우수상 나와 개의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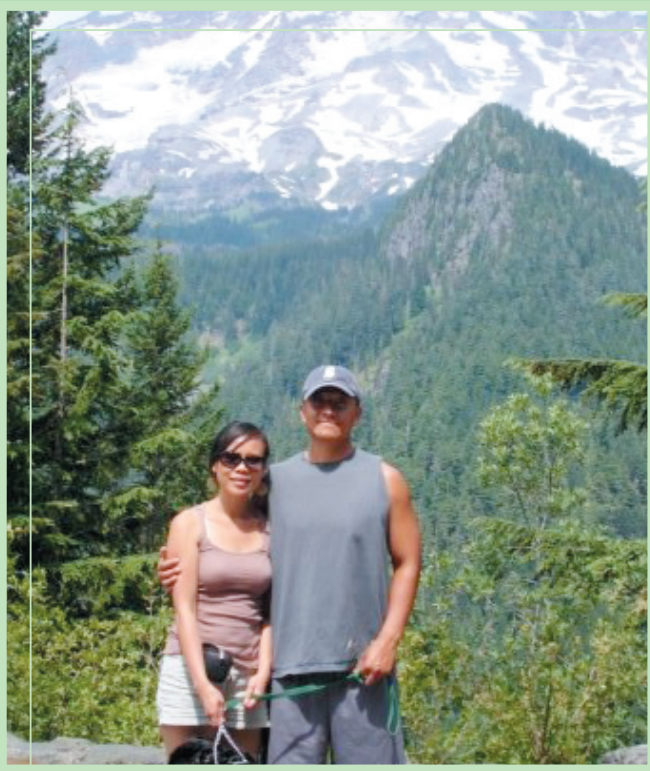
카보 산 루카스에서 너무나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다. 그 지역 서핑하는 사람의 개였는데 관광객들과 함께 있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특히나 일광욕을 하는 동안 우리가 만들어 주는 그늘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

제출자 : 사라 쇼, 판매 마케팅 분석가, 유니베라 미국 (5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Second Prize Winner Me in the Sunset...

We took our boat down to Capital Lake Fair in Olympia. There were spectacular sunsets all three nights. Washington State is one of the most spectacular places to live!

Submitted by Sarah Shaw, Sales and Marketing Analyst, Univera USA (A gift certificate worth \$50 will be awarded)



아차상 레이니어 산

처음 갔었던 레이니어 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도 기억한다. 산 정상에 있는 것 같았다.
제출자 : 사라 펠, 운영직원, 물류, 유니베라 미국 (3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Mt. Rainier Picture
It was my first time there and I remember how beautiful it was. It made me feel like I was right on the mountain.

Submitted by Sarann Pel, Operations Clerk, Distribution, Univera USA (A gift certificate worth \$30 will be awarded)



아차상 포항의 호미곶

꼬~옥 한번쯤 가보고 싶었던 그곳! 웅장함과 신비함을 동시에 느꼈던 곳이라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제출자 : 신혜경 대리, 영업구매팀, 유니젠 한국 (3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Homigot, Pohang

A Destination I've Always Wanted to Visit!
It was a place that felt at once majestic and mysterious; I strongly recommend it to those who have yet to see it!

Submitted by Hyekeyoung Shin, Assistant Manager, Purchase Sales Tema, Unigen Korea (A gift certificate worth \$30 will be awarded)

감상해 봅시다! *Here are some additional photos... Please enjoy*



너무너무 추운 여름

회계부부터 고객관리부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사람들의 추위에 떠는 모습입니다. 룬이 마침내 우리와 함께 일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룬은 새로 일을 시작한 건물관리 직원입니다. 건물 내 에어컨 조절이 잘 안돼 더운 여름에 건물의 어떤 직원들은 담요를 덮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었 습니다. 룬이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The Freezing Days of Summer

From Accounting all the way to the Call Center and those in between, Welcome Ron... We are all glad you are finally here. Here is an idea you can use for the Econet way. I pretty much have it like I would like to see it, but some kind of back ground would be cool if you can do so.



Additional Photos...

◆ 2006년 12월호에는 닮은사람을 찾아 사진을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For the October 2006 issue, send in your photographs of people who resemble celebrities, coworkers, and other familiar figures.

10월호 퀴즈 & 2006 8월호 당첨자 발표

지난 호 퀴즈정답 (조화 Harmony, The Orbit of Harmony)

-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상품으로 에너벨을 드립니다.)
 - 박홍엽, 대리, 경영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 브록 브론슨, 팀원, 다이아몬드 지원팀, 유니베라 미국
 - 제니 헌츠맨, 상임 회계 분석가, 유니베라 미국
- ▶ 지난 8월호 베스트 원고상! (상금으로 200,000원(\$200)이 수여됩니다.)
힐탑가든 알로에의 고향 – 힐탑가든 마크사이몬(Mark Simon)에게 베스트 원고상을 드립니다.
힐탑가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해준 기사였고, 특히 힐탑가든의 역사와 약초의 효능에 대해 그 가능성을 느끼며 우리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수 있게 해주는 코너였습니다.
- ▶ 사진공모 이벤트 당첨자 소개는 70page에 있습니다.
- ▶ 2006년 12월호에는 **맑은사람을 찾아 사진을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수상 : 100,000원 상품권 (1명),
 - 우수상 : 50,000원 상품권 (2명)

10월호 ECONET Way 퀴즈!

()는 ‘Natural Revolution from a Mystic Garden’이라는 컨셉으로 에코넷만의 강점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우선 ()로 체계적으로 분석된 1만여 종의 약용식물들 중 피부에 가장 좋은 효능과 효과를 주는 성분들만을 선별했다. 이렇게 엄선된 성분들을 복합 처방하여 어떠한 피부 유형과 조건에도 최대한의 치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화장품으로 개발한 것이다. 에코넷의 수직 계열화 속에 서 탄생된 진정한 **고기능성 프리미엄 화장품**이라 할 수 있다.

- 당첨되신분들께는 리니시에 2종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 ▶ 응모하실곳 : kaoh@univera.com

October Quiz and Winners of the August Quiz

Answers to the August 2006 quiz (Harmony, The Orbit of Harmony)

- ▶ Winners of the August Quiz (Enerbal will be awarded to the winners.)
 - Hongyeop Park, Assistant Manager, General Mangement Team, Univera Korea
 - Brooke Bronson, Diamond Support Team, Univera USA
 - Jenny Huntsman, Senior Financial Analyst, Univera USA

- ▶ Winner of the August Best Article Contest! (A cash prize of 200,000-won (\$200) will be awarded)

Hilltop Gardens Historical Home of Aloe - The award for Best Article goes to Mark Simon of Hilltop Gardens.

His article contained a wealth of information about Hilltop Gardens. In particular, it inspired us with pride in our company by illuminating the possibilities of Hilltop Gardens’ history and the efficacy of medicinal plants.

- ▶ The winners of the August photo contest are announced on page 70
- ▶ For the October 2006 issue, send in your photographs of people who resemble celebrities, coworkers, and other familiar figures.
 - First Prize: A 100,000-won gift certificate (1 winner)
 - Second Prize: A 50,000-won gift certificate (2 winners)

Quiz for the October issue of ECONET Way

Embodying the concept, “Natural Revolution from a Mystic Garden,” () is based on ECONET’s unique technological breakthrough: (). The hands-on experience and opinions of consumers, First, following a systematic analysis of over 10,000 medicinal plants using the () technology, only those ingredients proven to be the most beneficial and effective in enhancing skin health were carefully selected. These ingredients were then combined to produce a line of cosmetics capable of achieving the maximum healing effect for any type of skin, under any conditions. L’initie can thus be described as a genuinely high-performance, premium brand of cosmetics born in the process of ECONET’s vertical hierarchization.

- Winners will receive L’initie gift set as prize.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 ▶ Please send answers via e-mail (SeanL@econetwest.com)

We strongly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함께 만드는 ECONET Way

에코네시안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감명깊게 읽은 책, 기억에 남는 공연, 좋은 추억이 된 여행, 자신만의 에세이 등 자유롭고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원고를 보내주세요. ⇨ kaoh@univera.com

1. 이번호에서 가장 흥미롭고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2. ‘에코넷웨이’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3. ‘에코넷웨이’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나 제안을 적어 주십시오.
4. 참여하고 싶은 코너나 추천하고 싶은 사우를 적어주세요.

Let’s join the ECONET Way

ECONET Way is awaiting your participation.
Please contribute articles on any topic, such as your favorite book, an unforgettable performance, a memorable trip or a personal essay.
Your contribution would be deeply appreciated. ⇨ SeanL@econetwest.com

1. Which article did you find most interesting or useful in this month’s issue?
2. What would you like to read in future issues of ECONET Way?
3. Please submit any comments or suggestions you have for ECONET Way.
4. Kindly suggest a section to which you’d like to contribute or a colleague you’d like to recommend.



에코넷웨이에 바란다 / Story Suggestions for ECONET Way

에코네시안 여러분!

작은소식이라도 각 사의 기자분들께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기사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Suggestions for ECONET Way!”

Please e-mail the latest news to your company’s reporter listed below. No matter how trivial the item, your updates will be very helpful in assembling the next issue.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에코넷 한국 / ECONET Korea

오경아 대리, 비서팀, kaoh@univera.com
KyoungAh Oh, Assistant Manager, Secretary Team

남양 / Namyang

최순미 대리,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smchoi@namyangglobal.com
Sunmi Choi, Managemnet Support Office

전영숙, 생산본부 생산기술팀, et2388@namyangglobal.com
Youngsuk Jun, Production Technology Team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박정아 팀장, 고객지원팀, aloever@univera.com
Jeong Ah Park, Team Manager, Customer Service Tea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최재영 차장, 마케팅개발관리, jychoi@unigen.net
JaeYoung Choi, Manager, Marketing

장미라, 경영지원본부, happycode@unigen.net
Mira Jang, Managemnet Support Headquarters

에코넷 미국 / ECONET USA

이세현, SeanL@econetwest.com
Sean Lee,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알로콧 미국 / Aloecorp USA

김수겸 상무, 알로콧 생산관리, joseph@aloecorp.com
Joseph Kim, COO of Aloecorp Operations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손병일 차장, ByungS@econetwest.com
Byung Sohn, Financial Services Manager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신상현 과장, Sangs@upil.com
Sang H. Shin, Account Manager

알로콧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송운섭, 하이난 알로콧 & 남양 총경리 비서, yoonsup21@hanmail.net
Yoonsup Song, Secretary of Hainan Aloecorp & Namyang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허영문 대리, ympost@hanmail.net
Youngmoon Heo, Assistant Manager

남양 / Namyang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 :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ong-Myon,
Chinchon-Kun, Chungbuk, 365-850, Korea
Tel : (043)532-5144, Fax : (043)532-5328
www.namyangglobal.com

에코넷 한국 / ECONET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www.univera.co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 :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 (041)529-1510, Fax : (041)529-1599
www.unigen.net

에코넷 미국 / ECONET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300, Fax : (360)413-9185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500, Fax : (360)413-9150
www.universalifesciences.com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200, Fax : (360)413-9135
www.unigenpharma.com

알로콧 미국(생산) / Aloecorp USA (Production)

61/2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 (956) 262-2176 Fax : 956-262-8113
www.aloecorp.com

알로콧 미국(영업) / Aloecorp USA (Sal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400, Fax : (360)413-5036
www.aloecorp.com

알로콧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Room #1108, Haik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re, No.38,
Datong Road, Haikou, Hainan, China - Zip Code : 570102
Tel : (898)-6674-5400, Fax : (898)6674-3400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103-A 4th Floor, Okeansky Prosect,
Vladivostok, Russia,690002
Tel: 7-4232-42-20-95, Fax : 7-4232-42-13-36

에코넷 가족 / ECONET Family





L'initié

Skin Healing Program - 리니시에